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소희**

〈차례〉

1. 고정희: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
2. 해남: 유년/청소년 시절과 『월간 해남』
 - 2.1. 유년/청소년 시절(1948-1968)
 - 2.2. 『월간 해남』(1968-1969)
3. 광주: 광주 YWCA와 <목요시>
 - 3.1. 광주: 광주 YWCA(1970-1974)
 - 3.2. 광주: <목요시>(1979-1986)
 - 3.3. 광주: 광주항쟁과 주먹밥(1987-1988)
4. 서울: 수유리와 '민중의 예수'
 - 4.1. 서울: 수유리(1975-1978)
 - 4.2. 서울: '민중의 예수'(1981-1985)
5. 서울: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신문』
 - 5.1. 서울: [또 하나의 문화](1984-1991)
 - 5.2. 서울: 『여성신문』(1988-1989)
6. 결론: "어머니 하느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H00030). 이 논문의 진행을 위하여 필자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해남, 광주, 서울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별히 고정희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동생 고성자 씨와 해남 현지에서 관련 자료 수집과 오래전 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김경운 땅끝문학회 회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한양여대 영어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정희가 전 생애에 걸쳐서 천착해온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회문화적 담론이 그의 다양한 글쓰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시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48년 해남 농가에서 출생한 고정희는 유년시절과 독학으로 공부한 청소년기, 그리고 『월간 해남』 기사를 거쳐 1970년 광주 YWCA에서의 프로그램 간사, 1975년 한국신학대학 입학, 1979년 <목요시> 동인활동을 거치면서 자신의 창조적 자아를 다방면으로 훈련해 나갔고 문학적 역량을 축적해 나갔다. 그러나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이후 그의 창조적 자아는 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다. 특히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약 7년 동안 창립동인으로 참여한 [또 하나의 문화] 1)활동은 그의 여성주의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고정희는 1987년 또문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 좌담에서 여성문학가들에게 “문학적 수업과 페미니즘 의식을 동시에 길러가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 6월 8일 생애 마지막 공식 자리인 [또 하나의 문화] 월례논단에서 고정희는 자신이 기독교, 민중, 여성이라는 세 개의 주제를 꺼안고 씨름했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이 세 주제가 하나로 융합되어 한국문학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모성-신”을 제9시집 『광주의 눈물비』 제2부 『눈물의 주먹밥』에서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혁신적인 상징기호로 창조해냈다. 따라서 “어머니 하느님”은 고정희의 시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화두, 수유리(기독교), 광주항쟁(민중), [또 하나의 문화](여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고정희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가 닳을 내린 지점의 형상화이다. 고정희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수많

-
- 1) [또 하나의 문화]는 “인간적 삶의 양식을 담은 대안적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실천하여 가는 동인들의 모임”으로 책이나 출판사 명과 차별화하여 동인모임에 대한 표기는 위와 같다. 이 모임은 “남녀가 평등하고 진정한 벗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또한 하나의 대안적 문화를 사회에 심음으로써 유연한 사회체제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지향한다.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1호, 평민사, 1985, 속표지)

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고정희가 살아온 열정적인 삶의 태도, 고행의 수도승을 닮은 삶의 방식, “어머니 하느님”을 창조해 낸 혁신적인 시적 상상력 등이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의 결과이다. 이러한 그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회문화적 담론의 산물이며 그 결과 한국문학사에서 고정희를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또 개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고정희, 기독교, 민중, 여성,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 어머니 하느님, 광주항쟁, 주먹밥, 여성문학, 여성주의 문학, 여성신학

1. 고정희: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고정희 관련 연구가 한국 현대 문학 전공자들 중에서도 현대시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그의 시세계 분석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발전 과정과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이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내용은 고정희의 생애 전반에 걸쳐 그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정희의 글쓰기는 여성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 르포, 작품 후기 및 지인들과 나눈 대화 등 넓은 의미에서 그의 다양한 글쓰기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란 하나의 개념으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여성주의”와 “창조적 자아”, 또 두 가지 개념을 폭넓게 아우르는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 모두를 포괄한다. 본 연구 제목에서 “문학적 자아”가 아닌 “창조적 자아”라고 명명한 이유는 그가 창작한 문학작품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아의 발전과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

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의 삶 전체에 걸쳐 변화해 온 자아발전 과정 전체를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부제 “19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역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회운동이나 사회문화적 담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1980년대를 특징짓는 사회운동 전반, 넓은 의미로는 민주화 운동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기독교 사회운동, 민중운동, 여성운동 모두를 포괄하며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 역시 그러한 의미이다. 즉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고정희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 과정을 천착해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고정희가 평소 생활 지침으로 삼았던 말은 “오늘 하루를 생애 최초의 날처럼, 또한 마지막 날 같이”였다.²⁾ 그러므로 그는 유년 시절부터 생애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고양하는 작업에 매진하였으며 이는 그만의 독특한 삶의 태도였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연구를 기획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11년 6월 11일(토) 서강대학교에서 하루 종일 개최된 <고정희 추모 20주기 학술대회>로부터 비롯되었다.³⁾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제 아래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된 그날 학술대회에는 여느 때와 달리 고정희를 알고 있던 많은 지인들과 여성학 연구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⁴⁾ 오전 첫 세션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작가의 삶에 대한

2) 김정희는 1991년 8월 『現代詩學』에서 기획한 <고정희 시인 추모 특집>에 게재된 글, 『고정희 그 이름 高聖愛』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고정희와의 10년 남짓한 세월을 통해 보았던 그의 생은, 어쩌면 죽음까지를 함께 겨안았던 어떤 가열한 불꽃같은 것이었다. 그가 항용 생활의 지침으로 삼던 말은 <오늘 하루를 생애 최초의 날처럼, 또한 마지막날 같이>였다. 하여, 몸과 마음을 외롭게 지키면서 <고통 속의 무풍지대>를 가듯 완고하리만치 열심히 일했고 일 가운데 정신의 가나안을 느끼며 부지런히 살았다. 인간관계에 있어 참다운 시간의 의미란 量이 아니라 質이라는 걸 터득한 사람으로서였다.”(『고정희, 그 이름 高聖愛』, 『現代詩學』, 現代詩學社, 제23권 8호(통권269호), 1991. 8. 137쪽)

3) <고정희 추모 20주기 학술대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로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소규모연구회 지원으로 ‘고정희와 여성문학연구회’를 구성하여 매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부분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정희의 작품과 연결시킨 연구가 없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고 또한 오후 프로그램까지 모두 마치고 난 후에는 “고정희를 시집 속에 표기된 언어로만 가둔 느낌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문학, 여성문화, 여성사, 여성학 관점에서 바라본 고정희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으로는 문헌 연구 및 개인적 자료수집 등과 더불어 그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개인별 심층면접의 질적 연구방법론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여성작가의 창조적 자아발전 과정을 연구해 온 연구방법론은 19세기 영국 여성작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연구방법이다.⁵⁾ 한국의 여성문학가들 중에서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발전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여성작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고정희는 인식론적으로

-
- 4) ‘고정희 추모 20주기’를 맞이하여 [또 하나의 문화] 동인 중심으로 약 290여 명이 기부레터 형식으로 발간한 『고정희 시전집』 1·2권의 출판기념회가 같은 날 저녁 6시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일 학술대회 참여자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 5) 영문학 분야에서는 여성작가에 대한 이런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19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져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세기 영국소설 여성작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과 브론테 자매에 대한 연구이다. 1880년 조지 엘리엇 사후 지금까지 발표된 그녀의 평전은 셀 수 없이 많다. 또 조지 엘리엇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가능하게 한 것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9권의 책으로 엮어 『조지 엘리엇 편지들』(*George Eliot Letters*)이라는 제목으로 예일대학교에서 발간한 고든 헤이트(Gordon Height)의 기초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정희 연구’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고정희가 일생에 거쳐 수많은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언젠가는 책으로 엮어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브론테 자매의 경우에도 요크셔 무어지방에 위치한 그들의 생가 “하워쓰”(Haworth)는 영문학 내에서 여성문학비평이 각광받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브론테 박물관”(BPM: Brontë Parsonage Museum)으로 바뀌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1840년대에 왕성한 문학활동을 했던 세자매, 샬롯, 에밀리, 앤 브론테의 유년시절 창작 놀이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창조적 자아가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 왔으며 서로 어떻게 대화하며 상호 문학적 자아를 키워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해남을 방문하는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필수방문코스로 알려진 “고정희 생가” 역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브론테 박물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기 드물게 자신과 세계를 대화하는 관계로 설정하였고 주위의 지인들 및 다양한 타자들과 끊임없이 글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그의 여성주의 자아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정희는 한국의 여성작가들 중에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을 우리들 앞에 펼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드문 여성작가이며 바로 고정희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이 독특한 특징에 착안하여 본 연구주제가 기획되었다.

김양선은 고정희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하여 “고정희의 여성문학비평은 두 편에 불과하지만 여성문학비평연구에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하였다.⁶⁾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2호인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1986)에 실린 『한국여성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으로』는 “한국문학에서 여성문학비평의 출발점 역할”을 하였으며 본격적인 여성문학비평이 막 싹 트는 시점에 발표된 이 글은 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사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좌표를 설정하고 시각을 정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저 무덤위에 푸른 잔디』 및 『여성해방출사표』와 같은 고정희의 페미니즘 시집은 “80년대 중후반 여성문제에 눈떴던 여성들이 모종의 ‘목적의식’을 갖고 읽었던 여성해방 교과서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⁷⁾ 그러나 여성문학비평가로서, 또 페미니스트 시인으로서 오늘날 이러한 평가를 받는 고정희가 어떻게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를 발전시켜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고정희 사후 발간된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에 고정희와 일상적 관계를 통해 그의 다양한 면을 그려낸 글, 『토약질하듯 어루만지듯 가슴으로 읽은 고정희』에서 박혜란은 “고정희”라는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가 한국역사, 한국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 김양선, 『486세대 여성의 고정희 문학체험』,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39쪽.

7) 김양선, 앞의 논문, 41-42쪽.

사실 넉넉지않은 농가의 5남 3녀중 장녀로 태어난 그가 시인으로 이름이 오를 때까지의 범상치 않은 삶의 도정 그 자체가 이미 노력하는 사람으로서의 고정희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스물일곱에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발자취를 찾아 엮어 내는 일을 나는 진작에 나의 다음 할 일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고정희의 개인사라기보다 **자아가 강한 가난한 시골 여성의 치열한 자기실현의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여성사**가 될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필자 강조, 98쪽)⁸⁾

또한 1983년 고정희에게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을 안겨준 『초혼제』의 「제5부 사람 돌아오는 난장판」에 대해서는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고정희의 입담이 질펀하게 펼쳐지는 시”라고 평하면서 그의 이러한 언어구사력이 그 자신의 삶의 경험에 바탕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의 놀라운 언어구사력은 그가 노력하는 작가답게 늘 우리 말의 발전에 정성을 쏟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에는 해남과 광주를 오가며 그 틈서리에서 고단한 삶을 꾸려야 했던 청년기의 경험에 크게 힘을 입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 조은은 고정희의 언어구사는 이 시대의 편협하고 삭막한 제도권 교육이 풀 수 없는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65쪽)

본 연구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천착한 고정희의 삶과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맞닥뜨린 척박한 현실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국 여성문학가들과 여성문학 연구가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활기찬 추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⁹⁾

8) 앞으로 인용 단락 내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본문에서 진하게 표시함.

9) 2013년 11월 16일 개최된 한국여성학회의 추계학술대회 주제 “‘시장사회’: 감정의

[또 하나의 문화]에서 함께 동인 활동을 했던 “고정희의 친구들”은 고정희 추모 2주기인 1993년 고정희 문학연구에 필요한 기초 작업으로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을 발간하였다. “고정희의 친구들”은 고정희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열성적인 회원으로 그 조직 내부에 여성분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해 고민했으며 기독교계에 여성주의적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자 많이 뛰어다녔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문학회와 기독교계 고정희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고정희 시인의 삶과 문학이 정리된다면 80년대의 민족 민중 문학의 모습을 우리는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¹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진행된 고정희 관련 연구들은 여성문학 분야 내에서도 주로 시 분석에만 한정되어왔으나 실제로 그의 활동영역은 훨씬 폭넓은 것이었다. 여성시인으로서 고정희의 문학적 경력은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을 연결시키는 1980년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삶 자체가 바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산물이다.¹¹⁾ 이와 같이 고정희는 한국문학사 최초의 여성주의 시인으

정치경제학과 여성주의 대안으로서의 노동윤리학”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이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를 키워나가기에는 얼마나 척박한 현장인가를 반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시장 경제가 힘을 얻은 이 시대에 자신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 성장을 갈망하는 많은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소망과 이 사회의 요구사항을 화해시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장에서 어떻게 그 고단한 행군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고정희가 20세기 후반 격동의 한국근대사에서 자신의 창조적 자아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가를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10)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33쪽.

11) “고정희의 친구들”은 그를 추억하며 엮어낸 책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의 첫머리에서 “고정희 시인의 문학적 삶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겪어왔던 1980년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는 한편으로는 당시 민족민주 운동의 물결을 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일기 시작한 여성해방 문학의 물결을 일으키며 그 시대 누구보다도 격렬한 삶을 ‘글쓰는 노동자’의 전형처럼 살다가 갔다”고 쓰고 있다(31쪽). 김혜순 시인 역시 “고정희는 짧은 삶과 격렬한 시를 통하여 여성해방적, 민중적, 기독교적 시각을 표출해 왔다. 또한 그는 이 세가지 시각이 어우러진 세계를 향해 가는 노력을 일생을 걸쳐 해왔다”고 평가하였다(『모든 사라지는 것들』, 표지 뒷면).

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운동가로서도 큰 자취를 남겼다. 본 연구는 고정희의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고정희의 유년시절부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획되었으며 그러한 경험이 그의 시 창작 활동에도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정희를 여성시,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한국현대시사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은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문학 연구자들도 고정희를 여성문학이라는 사유를 안에만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의해온 바이다. 1999년 같은 해에 발표된 송지현, 정효구, 김승희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¹²⁾ 고정희는 자신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시인으로서의 보기 드물게 날카로운 사회역사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의 영향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정희를 1980년대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에만 가두는 것도 크나 큰 오류이다. 그는 오롯이 그의 시만으로도 문학적 관

12) 송지현은 고정희가 펼쳐보인 시세계는 그 규모나 소재, 분량 면에서 다양한 모색을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정신과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었으며 시인으로서 시 형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자세와 시도의 노력에서도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말한다. 그 다양성과 역동성은 물론 서정성과 열정까지도 두루 갖추었다는 점에서 고정희는 분명 “큰 시인”이며 “큰 사람”이었다고 평가한다(151쪽). 정효구는 지금까지 고정희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문학 분야 연구자들 중에서도 고정희의 문화 및 사회운동 활동의 중요한 영향에 주목했던 연구자이다. 그는 논문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에서 고정희가 시 창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사회운동을 통해서 여성문제에 힘을 쏟았던 시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고정희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시 창작의 측면과 문화 및 사회운동사의 차원에서 함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본인의 연구는 시 분야의 논문이기 때문에 고정희의 여성문제 탐구의 실상과 의미를 주로 시 작품에 근거를 두고 살피고자 한다고 말한다(44쪽). 김승희는 「상징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에서 고정희가 필리핀에서 식민주의자들의 유산과 그에 대항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저항적 문화를 체험하면서 쓴 마지막 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의 의의를 논하면서 “스피박이 말하는 하위 주체로서 아시아 여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전해 들어가는 공격적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150쪽).

점에서 높게 평가받는 시인이다. 정효구는 1990년과 1991년 『現代詩學』에서 <특별기획> 연재한 “80년대의 시인들” 시리즈 12편에서 고정희論을 쓰면서 부제로 “살림의 시, 불의 상상력”을 달았다. 그리고 그의 시세계를 여는 말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그의 문학세계를 만날 때마다 그가 영혼을 불어넣은 언어들로부터 솟아오르는 힘과 생명의 불길을 느낀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그에게서 <불의 시인>이라고 명명할 정도의 타오르는 에너지를 보았으며 그의 정신과 영혼이 <불의 상상력>에 근거해 있음을 절감해왔다. 이 말은 우선 엄청난 창작욕과 그의 창작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인간과 세계의 해방을 지향하며 끝 간 데 없이 질주하는 그의 정신력과 신들린 사람처럼 언어를 주술의 세계로 활용하게 끌어올리는 그의 매력적인 능력에 더 큰 근거를 두고 있다. (217-218쪽)

그리고 그의 시세계를 이루는 소중한 요소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되 죽어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어둠과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넘어 살림과 생명의 세력을 키워내고 발견해내려는 그의 일관된 정신세계가 그 요소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라고 고정희 시세계의 고유한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¹³⁾ 조옥라 역시 유고 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에 쓴 「발문: 고정희와의 만남」에서 고정희 가슴 속의 불길은 강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으며 “부당한 일에 대한 절절한 분노”를 담고 있는데 “그 분노가 아낌없이 시 속에 퍼부어져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사물에 대한 애정, 아니 삶에 대한 열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수도승이었다”고 회상했다.¹⁴⁾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정희의 여성주의 의식과 그에 기

13) 정효구, 「고정희 論: 살림의 시, 불의 상상력」, 『現代詩學』, 現代詩學社, 1991.10, 234쪽.

14) 조옥라, 「발문: 고정희와의 만남」, 고정희 지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

반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 및 변화과정이 그의 삶의 어느 지점,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상호 소통적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그동안 수행된 고정희 연구가 간과해왔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여 그 빈 곳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다.

김승구는 2007년에 발표한 논문 「고정희 초기시의 민중신학적 인식」에서 지금까지 학계에서 진행해온 고정희 시에 대한 평가는 페미니즘 같은 가치 범주에서 평가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평가를 어느 정도 긍정하면서도 그러한 평가가 고정희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고정희의 창작 과정이나 정신적 배경을 고려할 때 고정희는 서구의 중산층 페미니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영향관계와 맥락 속에서 정신적 고투를 벌여왔다”고 말하면서 고정희의 여성주의 후기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대학 시절에 논리화된 민중신학적 논리 구조였다”고 주장했다.¹⁵⁾ 이러한 김승구의 주장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고정희 관련 연구가 고정희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 주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김승구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 중산층 페미니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정신적 고투를 벌여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정희의 독특한 여성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191-192쪽.

- 15) 김승구, 「고정희 초기시의 민중신학적 인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11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271쪽: 김승구는 고정희가 기본적으로 전남 해남의 농민가정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5남 3녀 중 장녀라는 위치를 갖고 있었다는 점,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를 신봉한 신앙인으로서 한국신학대학에서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 신학도였다는 점, 또 1980년 광주의 역사적 사건을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끝내 부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문학 분야에서 고정희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연구들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주제의 연구가 있는데 그것은 고정희가 실존적 존재로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독특한 이해방식을 가졌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김주연은 1983년 『이 시대의 아벨』 시집의 해설 『高靜熙의 의지와 사랑』에서 고정희에 대해 매우 주목할 만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가 고정희 시에서 고통받고 가난한 민중들에 대한 찬양만을 읽고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문학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꼴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실재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태도를 나무랄 때 그것을 다만 관념의 유희라고 비웃는다면 우리 문화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야경꾼 문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고정희 시에서 이러한 수평적 문화이동의 천박성을 극복할 가능성을 읽는다고 논하였다.¹⁶⁾ 박선영 역시 2005년에 발표한 논문 『고정희論: 정신의 수직운동을 중심으로』에서 고정희 시에는 “스스로를 존재 이해의 계기로 삼아 세계를 이해하려고 열망하는 자아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며 세계 이해의 도정에서 그가 다가오는 세계를 ‘그것’들로 이해하지 않고 인격적인 ‘너’로 위치시킴으로써 나와 너, 우리의 존재가 공유할 거점을 마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고정희 시가 던지는 끈질긴 대화의 정신은 “깊게 침잠해 슬픔과 한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신과 마주하고 수직적으로 도약하는 정신의 고양, 이는 표피를 훑고 지나가는 문화의 경박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새롭게 할 반성의 계기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¹⁷⁾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고정희 정신세계의 특징과 그의 자전적 경험, 그리고 그가 살았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고정희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발전, 변화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고정희는 1991년 6월 8일(토) [또 하나의 문화] 월례논단에서 자신의

16) 김주연, 『高靜熙의 의지와 사랑』,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127-128쪽.

17) 박선영, 『고정희 論: 정신의 수직운동을 중심으로』, 『돈암語文學』, 제14집, 돈암어문학회, 2001, 124-125쪽.

삶을 오늘에 이르게 한 세 개의 행운이 있는데 그것은 광주와 수유리,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와의 만남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은 “광주에서 시대의식을 얻었고 수유리 한국신학대학 시절의 만남을 통하여 민중과 민족을 얻었고 그 후 [또 하나의 문화]를 만나 민중에 대한 구체성, 페미니스트적 구체성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만남들이 “분리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나의 한계이며 장점”이라고 평가하였다.¹⁸⁾ 그러므로 고정희의 문학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미 발표한 시,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의 여성운동가로서의 활동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 중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을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정희에게 있어서 “광주”는 고정희 자신이 [또 하나의 문화] 월레논단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가치관과 관점을 부여했다는 점과 바로 그 점이 고정희를 지금까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 여성문학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¹⁹⁾ 그러므로 필자는 본 연구를 고정희가 1970년대 초반 해남에서 광주로 와서 몸담았던 광주 YWCA에서의 활동시기를 함께 보냈던 지인들 및 1979년 고정희가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밝고 있는가』를 출판했을 당시 광주에서 <목요시> 동인으로 함께 활동했던 강인한 시인과의 인터뷰로부터 시작하였다.

18) 박혜란, 앞의 글, 61쪽.

19)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란 고정희가 [또 하나의 문화] 월레논단에서 주장했던 ‘문체혁명’의 일례로써 “더 많은 민중의 한숨을 끌어안는 열린 질문, 비판적 리얼리즘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여성해방문학이 나아갈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이소희,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와 문체혁명: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01-111쪽).

2. 해남: 유년/청소년 시절과 『월간 해남』

2.1. 유년/청소년 시절(1948-1968)²⁰⁾

高靜熙(본명 高成愛)는 1948년 음력 1월 17일 아버지 고양동 씨와 어머니 김은녀씨 사이의 5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고양동 씨는 공식적인 근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1920년대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군수물자 공장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 일본 사람들이 현지의 일본여자들과 결혼을 권유했으나 고향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으로 해남에 돌아와 광양 김씨 김은녀 씨와 결혼하였다. 그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부모님은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으나 곧 적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것이고 군수물자 공장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해남으로 돌아왔다. 그 때 일본에서 양복과 양장용 남녀 옷본과 함께 미싱 기계 본체를 2-3대 갖고 돌아왔는데 이는 고정희 가족이 해남에서 자리잡고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큰 밑천이 되었다. 2-3년 지나자 그동안 벌은 돈으로 논과 밭을 2,30마지기 정도 구입하게 되었고 이후 집안에서는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었다. 고정희가 유년시절을 보낼 즈음에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집안 내 모든 사람들이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었다. 일본에서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 집안 형편상 수시로 장녀인 고정희를 찾았다. 집안의 세 딸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과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는데 고정희는 수시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 어머니가 항상 큰소리로 “성애야!”라고 이름을 불러서 찾곤 했다. 그럴 때면 현재 생가의 고정희 방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다가 들키곤 하여 어머니께 심한 꾸중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혼란의 시기에 고정희는 농사일 때문에 입학적령기에 초등

20) 고정희의 유년 및 청소년 시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동생 고성자 씨와의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3학년으로 월반하여 학교에 들어갔다.²¹⁾ 그러나 농번기에는 결석하기가 일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일등을 차지했다. 삼산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지속적으로 빌려 읽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계속 빌려 읽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사서는 동생인 고성자 씨가 가면 미리 빌려줄 책을 준비해 두었다가 전해주었다고 한다.²²⁾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정희가 도지사 상을 타게 된 경위는 당시 고정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성적으로는 매우 우수하여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월등하므로 도지사상을 받을 자격이 되었지만 6학년을 맡은 다른 반 선생님들은 고정희가 연중 3분의 1 정도의 기간을 결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도지사상 수상을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고정희 담임선생님의 주장으로 다시 시험을 보고난 후에야 도지사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남중학교로의 진학은 자신의 실수와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좌절되었다. 입학시험을 보고 온 고정희는 시험지의 뒷면을 보지 못하여 문제를 모두 다 풀지 못하였다고 안타깝게 걱정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석 입학은 못하고 그저 입학시험에 합격만 되었다. 당시 집안 형편상 수석 합격만 되었어도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남중학교를 보냈겠지만 입학만 되었다고 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²³⁾ 그러므로 고정희의 정규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났다. 그 후 집안에서 농사일을 거들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또

21) 그러므로 고정희가 정식으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10세 전후였으며 그 전에는 정식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이때는 고정희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독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다른 지식에의 욕구가 더욱 강렬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3) 동생인 고성자 씨는 해남중학교를 수석 입학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간곡히 아버지를 설득하여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에 비추어 고정희의 경우도 수석입학을 했으면 어떻게든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고성자 씨의 의견이다.

다양한 사회교육 과정에도 등록하여 자신을 여러모로 훈련시켜 나갔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고정희의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실천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정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은 아버지였다. 고정희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아버지가 기거하시는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끊임없이 대화했다. 아버지 고양동 씨는 비록 일본에서 정식으로 근대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근대문물과 함께 신식 사고방식을 익혔다. 특히 세계 역사를 이야기로 꾸며서 자녀들에게 매우 재미있게 전달하였다. 그러므로 고정희는 아버지와 대화의 통째를 통해서 남다른 지식에의 욕구와 바깥 세계로의 동경을 채우는 동시에 지적 자극을 유발하는 계기를 제공받았다. 동생인 고성자 씨에 의하면 자신과 막내 여동생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느라 아버지와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었던 반면 언니인 고정희는 아버지가 예뻐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와는 잘 통했다고 한다.²⁴⁾ 또한 현재 생가가 있는 송정리 부근의 인근 지역에서는 대원군의 8촌 조카인 이원홍 씨가 내려와 살았다. 그 집은 해남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대저택으로 현재 고정희 묘소 뒤의 동백나무 숲 건너지역에 위치해 있었다.²⁵⁾ 그 집은 당시 해남에서는 지역 유지였는데 그 대저택의 주인은 고정희의 아버지를 불러서, 또 그 집의 딸은 고정희를 불러서

24) 고정희와 아버지의 일상적인 부녀관계를 보여주는 시로 『현대사 연구·13』이란 상당히 냉정한 제목의 시편에 「눈물꽃」이란 부제를 단 시가 있다. 박해란은 이 시를 분석하면서 제목과는 달리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는 시에서 언어와 글 쓰기만으로 독자들의 눈물을 솟게 만드는 시인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시는 현실참여적인 딸(시인 자신)과 그를 걱정하는 팔순 아버지의 대화체 시입니다. 고정희가 단호하게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조심스럽게 충고를 보내는 아버지의 말은 중간 중간에 ‘...’를 삽입하는 반면 딸의 말은 단호하게 행 바꾸기를 하는 형식으로 썼는데 이러한 형식에 담긴 부녀간의 끈끈한 정이 읽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눈물을 말하지 않되 눈물을 솟게 만드는 시인의 능력”(74쪽).

25) 해방이후 이 대저택은 보존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건축자재를 뜯어가는 바람에 거의 해체되었다. 고정희는 이 저택이 보존되지 못하고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대화하기를 즐겼다. 그 당시 마을에는 대저택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농민들의 삶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으로부터 구박받는 아내의 삶은 매우 일상적인 생활이었으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시댁으로부터 구박받는 고정희의 첫 소설 『학동택』은 당시 해남에 존재하는 실존 인물을 그려낸 것이었다.²⁶⁾ 고정희는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가 누구라도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밥을 먹고 밤새도록 대화나누기를 즐겼다. 앞에서 언급한 김주연과 박선영이 고정희 시세계의 특징으로 세상/타자와 대화하는 자아를 꼽았던 점은 이와 같이 고정희가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고양시켜 나간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고정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서 낯간다고 하면 항상 쫓아가서 유심히 보고 관찰하였으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하곤 하였다. 고정희와 동년배이며 후에 『월간 해남』에서 함께 일했던 황희택 씨에 의하면 당시 해남에서의 ‘굿’이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농번기에는 농사일과 함께 진행하는 삶의 일부였고 그 굿가락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²⁷⁾ 또한 1960년대 해남에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한 <두륜문학회>가 있었다. 고정희가 어떤 연유로 이 문학회와 관련을 맺게 되었는가는 확실치 않지만 1968년 발표된 『두륜문학회』 제5집에 지인의 결혼을 축하하는 고정희의 습작시 『희자언니에게』 등 두 편이 게재되어 있다. 이 문집은 제대로 제본된 인쇄출판물이 아니라 굵어 등사하여 왼쪽 옆을 철끈으로 묶은 것이다. 이 문집의 글씨가 누구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 후반 고정희가 해남지역의 문인들과 교류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이때는 고정희가 20세 되던

26) 고정희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에서 “하빈”이라는 필명으로 『학동택』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이 소설은 그의 유일한 소설 작품이다.

27) 현재 황희택 씨는 (사)세계민속음악진흥회를 세워 해남 고유의 굿가락 보존과 전수에 힘쓰고 있다. 그러므로 고정희가 1980년대에 “마당굿시”라는 장르를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 낸 점 역시 고정희의 해남 유년시절 경험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였으므로 문학을 향한 그의 열정은 지속적인 독학 및 강렬한 지적 욕구의 추동력과 어우러져 해남지역에서나마 자신의 문학창작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인 그룹을 만나게 되었다.

2.2. 『월간 해남』(1968-1969)

1968년경 해남에는 대대로 양조장을 경영하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당시 주인인 황도훈 씨는 해남문화를 보존하고 발굴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즈음 고정희가 자신의 문학적 열망을 채우기 위하여 해남의 여러 곳을 찾아다니던 때 <두륜문학회> 등 해남지역 문인들을 통하여 황도훈 씨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황도훈 씨는 그 후 사재를 털어서 ‘해남문화원’을 만들고 해남의 고유문화를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²⁸⁾ 황도훈 씨가 지역 언론지로서 『월간 해남』을 등록한 시기는 1968년 8월 7일이며 인쇄는 8월 15일이고 발간은 8월 20일이다. 그러므로 창간호는 1968년 9월에 발간되었다.²⁹⁾ 이때부터 고정희는 『월간 해남』의 기자이며 직원이었으며 황도훈 씨 및 그의 아들, 딸과 함께 『월간 해남』을 발행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황희택 씨에 의하면 당시 세 사람은 줄곧 기자증을 갖고 해남 곳곳을 직접 걸어다니며 기사를 취재했

28) 황도훈 씨는 1950년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 교사 및 광주신문사 문화부장, 농촌중보사 편집국장, 남도일보사 사회부장 등을 거쳐 1968년 『월간 해남』 대표를 맡았다. 그 후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년간 본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해남문화원 원장을 맡아서 해남의 고유문화를 유지, 보존, 발굴하는 일에 매우 열성적이었다고 한다. 호는 우보이며 2006년에 작고하였다.

29) 현재까지 알려진 ‘고정희 연보’에는 해남에서 『월간 동백』에서도 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월간 해남』에서 약 1년여 기간 동안 기자로 일했던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월간 해남』 자료를 제공해주신 해남군 향토역사연구가인 임상영님, 또 고정희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알려주신 황희택(사)세계민속음악진흥회 회장과 황광남 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황광남 씨는 지금까지 고정희에 대해서 알려진 사항들 중에서 고정희의 해남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전하면서 그 때부터 고정희의 문학적 재능은 남달리 뛰어났다고 말했다.

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그 내용을 기사화해서 자신과 누나인 황광남 씨, 그리고 고정희가 잡지 발간을 위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또 고정희는 창간호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시작품을 게재하였는데 그 첫 작품은 「보리」이다. “海南文學同好會員作品集”이라는 제목 아래 해남지역 문인들의 작품을 엮은 난에 게재된 이 작품은 비록 고정희가 1975년 시인으로 추천받기 전의 습작이기는 하지만³⁰⁾ 처음으로 활자화되어 세상에 공표된 고정희의 첫 작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³¹⁾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리

고 정 희

바람이 안기는
푸른 수의 자락은
고초를 이겨낸 병사의
깃발이나.

충만으로 출렁이는 이랑 길에
흐뭇한 보람은
또 황금으로 익어
청운이 무너진 하늘
수다스레 피어 오른 계절의
찬가여

30) 고정희는 한국신학대학에 다니던 1975년 「부활, 그 이후」와 「戀歌」로 박남수 시인의 추천을 받아 『現代詩學』을 통해 등단하였다.

31) 1967년 『새농민』에 고정희 시가 게재되어 장만영 시인의 추천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현재 그 작품의 제목과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시련을 이겨낸 아픔의 자욱들이

인내로 모듬하여³²⁾

향기 화안한

—— 미소.

이와 같이 『월간 해남』에는 고정희의 초기 습작시들이 매 호마다 게재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월간 해남』에 게재된 고정희의 르포 기사들은 “국회의원 김병순을 만나서”(1969년 9·10월 합병호/ 통권12호)와 “한우단지를 찾아서: 황산면 기성리”(1969년 12월호/ 통권14호)와 같은 기사들이다. 이 기사들은 해남 현지 사람들이 당면한 현안들, 예를 들면 추곡가, 대홍사 관광지구 개발, 고천암 개발 및 한우 농가 지원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취재하고 또 중앙 행정부처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보고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또한 고정희는 『월간 해남』 기자생활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이며 강렬하게 바깥 세계로의 동경을 키우게 된 것 같다. 국회의원 김병순과의 인터뷰 기사 앞부분에 “나이 어린 여자”인 자신이 현재 기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오후 2시--모처럼 귀향한 국회의원 金柄淳 씨가 지금 읍내 천변 식당에서 당신의 소속 팀원들과 회의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염치불고하고 쫓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됐다. 23만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 벌써 네 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여자인데다가 아직 어린 터이라 **조메** 만나보기 힘드는 처지였고 보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만나볼 수 있겠냐고 서둘렀던 것이다. 월간해남사의 기자가 되면서 나는 그분에 관한 많은 말들을 들어왔다.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한다. 차제에 한번 만나서 그분에 대한 시평을 나대로 해두고 싶기도 했다. 나

32) 원본에 이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는 그분과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황소를 닮은 아주 건강한 체구에 구리빛 살갗 하며 꿈틀거리는 눈썹이 사람을 위압하는 것 같으나 아주 다정하고 소탈하며 **아버지같은 정감을 느끼게 하는** 분과 나는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친숙해져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분에게는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무슨 매력 같은 게 있었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 강조, 48쪽)

이 글은 당시 고정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거의 유일하게 활자화된 글이다. 기사 중간에 “조메”와 같이 아직 사투리가 섞인 용어를 쓰고 있으며 “황소를 닮은”과 같은 비유라든지 “아버지와 같은 정감을 느끼게 하는”과 같은 표현은 당시 고정희의 정서와 상상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농촌 가정에서 자란 나이 어린 여자로서의 자아가 고스란히 드러난 글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를 키워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지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르포 기사를 “본사 편집부 차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高成愛”라는 본명으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위 르포 기사와 같은 호에 게재된 시 『빛속의 抒情』은 고정희라는 이름을 “高貞姬”라는 한자로 표기하여 기록하였다. 이 시는 문학소녀의 풍부한 감성으로 밤비 내리는 전원의 흥취를 독자들도 흠뻑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그려 낸 것으로 매우 서정적이다.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빛속의 抒情

高貞姬

어머니 같은 목소리의
비가

은방울 무너를 창가에 수놓는
 밤은
 잠시 꿈으로 돌아가자
 잊어온 동심으로 돌아가자

어제와 오늘에 유래된
 한 번의 흐느낌을 내가 알았드라도
 裸木을 적시던 봄비 같은
 목소리의 비가
 피아니시모로 내리는
 밤은
 소녀적 두고온 호수로 가보자
 사탕을 숨겨둔 고향으로 가보자

거기 일어버린³³⁾ 수없는 얼굴과
 먼 옛날 돌담 밑의 소꿉동무와
 꿈에서 점치던 마술 할미도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현실과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 해줄 것이다

한번쯤 신나는 소나타를 통겨주고,
 어머니 같은 목소리의
 비가
 치렁치렁한 꿈나라의 이야기를
 소릇이 창가에 퍼주는

33) 원본에 이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밤은

잠시 꿈으로 돌아가자

잊어온 동심으로 돌아가자

그 전에 발표된 시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한글로 “고정희”라고 표기했던 것에 비하여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점 역시 변화된 점이다. 그러나 이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1979년에 발표된 첫 번째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표지에 기재된 “高靜熙”라는 이름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자들이 의미하는 바대로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는 “고성애” 자연인으로부터 문학과/시인 “고정희”로, 또 “정숙한 여자” 고정희로부터 “고요하게 빛나는” 고정희로 변화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요하게 빛나는” 고정희로의 변화는 1970년대 초반 광주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³⁴⁾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월간 해남』 시절은 고정희에게 문학적 자아가 새싹을 틔워서 성장해가는 초기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딸”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해남에서의 유년시절과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자신을 발전시켜갔던 10대 청소년시절, 그리고 20세 전후 약 1년여 동안 『월간 해남』 기자로서의 경험은 고정희가 남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 시기였으며 자신의 문학적 뿌리를 남도의 산천과 일상생활에 두었다는 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³⁵⁾

34) 이에 대해서 동생인 고성자 씨는 “언니와 함께 광주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언니가 자신의 한자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35) 고정희 사후 매년 6월 9일 기일 즈음하여 ‘고정희 기행’을 다녀올 때마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그가 한결같이 “또문 친구들”에게 남도로 함께 여행가자고 제안했던 점을 누누이 되뇌이곤 했다. 조옥라는 고정희와 함께 한 남도여행에서 본 그의 자연과의 교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이상의 세계는 ‘강 같은 평화’의 세계였으며 괴로움의 장작불을 영혼의 횃불로 바꾸는 곳이어서 샘솟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세계의 모형을 그는 그가 사랑하는 남도의 산과 강, 들풀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속에서 그의 영혼은 끊임없는 교감을 하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의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3. 광주: 광주 YWCA와 <목요시>

3.1. 광주: 광주 YWCA(1970-1974)

고정희는 당시 해남의 유일한 교회였던 해남읍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이준묵 목사님과 송봉해 장로의 소개로 송장로의 딸인 송희성 씨와 연결되어 1969년말 또는 1970년초에 광주 YWCA로 오게 된다.³⁶⁾ 동생인 고성자 씨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아버지에게 본인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광주로 나가겠다고 청하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아무 연고도 없는 광주에 가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고정희는 자신이 어떻게든지 생활해나갈 수 있으니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후 고정희가 광주에 와서 처음으로 묵었던 곳이 “성빈숙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는데 이곳은 광주 YWCA가 그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고정희는 광주에 도착해서 거처할 곳은 마련하였으나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현재 여성신문 광주지국장을 맡고 있는 강정임 씨이다. 강정임

내가 무작정 그를 따라 나선 남도여행에서 그는 너무나도 말이 없었다. 마치 말을 한다는 것이 그의 엄숙한 순례 길의 행정에 방해라도 되듯이 그는 조용히 둘러보면서 문득 자신에게 이 산천이 얼마나 포근하고 힘이 있는가를 속삭이곤 했다”(『발문: 고정희와의 만남』, 195쪽). 이러한 습관은 동생인 고성자 씨의 고정희 유년시절에 대한 증언, 즉 10대 시절부터 집에서 책을 읽고 난후 집 뒤의 소나무 숲(현재 고정희 묘소 뒤)을 혼자 산책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는 부분과 맞닿아있다. 조용미 시인은 고정희 추모특집 글 『그대, 아름다운 사람』에서 고정희와 함께 그의 고향집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고정희 자신이 “어릴 때 솔밭에 자주 올라가 책을 읽었다고 했다”는 점과 “큰 산이 셋이라 삼산면이고 소나무가 많은 동네라 송정리”라고 설명했음을 덧붙였다(142-143쪽).

36) 송희성 씨의 아버지는 당시 해남에서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지역유지였으며 후에 제헌국회의원까지 지냈다고 한다. 당시 송희성 씨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광주 YWCA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해남읍교회 두 사람의 소개로 광주에 온 고정희를 자연스럽게 광주 YWCA로 안내하게 된다(송희성 씨 인터뷰 참조).

씨는 당시 『전남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어느 날 신문사에서 고정희를 만났다. 그 후 고정희는 『새전남』, 『주간전남』 기자로 일하게 되었으며 곧 YWCA 프로그램 간사도 맡게 되었다.³⁷⁾ 지금까지 필자가 만났던 당시 YWCA 회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시 고정희는 표정이 어둡고 거의 말이 없었으며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많은 사람들과 터놓고 사귀는 편은 아니었으나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정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회원들 중에서도 YWCA의 일상적 업무를 봤던 사람들은 고정희에 대해서 잘 몰랐으나 대학부와 독서클럽인 <여울물클럽> 회원들과는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³⁸⁾ 따라서 고정희는 이곳에서 여러 프로그램 간사 일을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 사회운동을 체험하는 동시에 열성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여울물클럽>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문학적 자아를 키워나갔다.

광주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이 시기 동안에도 고정희는 끊임없이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았으며 열심히 글을 써서 참여하곤 하였다.³⁹⁾ 일례로, 1968년 가을, 이효재, 윤정옥 교수님을 비롯한 당시 지식

37) 고정희는 광주로 간 이후에도 해남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1970년 해남 '현대실'에서 『월간 해남』사 주관으로 개인 시화전을 개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정희 시전집』 2권, 『고정희 연보』).

38) 필자는 고정희가 광주 YWCA에서 활동했던 20대 초반의 5년이 고정희의 삶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확신하여 그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광주 YWCA 회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났다. 김경천, 송희성, 안희옥, 강정임, 최정자, 최정희, 김정, 운수자 씨 등이다. 이들 모두 한결같이 고정희에 대해서 위와 같은 평을 내렸으며 <여울물클럽> 회원들의 경우에는 고정희에 대해서 매우 친밀하고 높게 평가했던 반면 다른 회원들은 비교적 그렇지 못하였다. 그 분들 중에는 당시 고정희가 YWCA의 공식적인 업무보다도 자신의 문학적 자아를 키워나가는 일에 더욱 열심이었다고 말한 분도 있다. 이는 당시 고정희가 자신의 창조적 자아를 키워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이 일에 바쳤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고성자 씨에 의하면 이 시기동안 고정희는 기독교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유교 및 불교 관련 서적에도 심취해 있었으며 자신이 읽고 난 내용들을 고등학생인 동생에게 자주 얘기하곤 했다고 한다.

39) 동생인 고성자 씨에 의하면 고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글을 써서 여러 곳에 투

인 여성들이 만든 『新像』이라는 잡지가 창간되었다. “새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추구하며 “유덕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관을 가진 생산적인 여성의 출현”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계간지이다. 창간호 맨 앞에는 이남덕의 “창간에 즈음하여” 글 뒤에 곧바로 이효재 교수님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란 글이 실려 있다. 고정희는 광주 YWCA 프로그램 간사 일을 하면서 이 책을 접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이 3편의 글을 투고하였다. 1971년 겨울호(제4권 4호)에는 시 「그녀를 위한 동화」를, 1972년 여름호(제5권 2호)에는 수필 「우울한 산책」을, 그리고 1971년 가을호(제4권 3호)에는 <독자에게서 온 편지> 난에 글을 게재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독자에게서 온 편지”이다. 이 글은 고정희가 독자로서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므로 당시 그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좌표를 읽어 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李교수님께”(이효재 교수님)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정식 독자”로서 “이번 71년 여름호는 너무너무 내용이 좋았다는데서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와 기대어린 찬사를 보냅니다”라는 첫 문장에서 “어느 때보다도 내용이 알찬 것 같습니다”로 이어진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자신의 평가를 조목조목 써내려갔다.

특히 현대여성이 재검토해야 할 여성의 윤리면에서 다각도로 다뤄주신 점이라든지 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익했고 선할 수밖에 없는 홍운숙 씨의 詩와 詩人 高원 씨의 수고도 ‘新像’을 더욱 친하게 이끌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정주부가 쓴 콩트 ‘목병’--, 그것 정말 재미있습니다. 소위 현대지성(인텔리겐차)의 고민을 가장 적절한 듯한 기교로 묘사한데는 그 기법이 아주 놀랍더군요. (필자 강조, 206쪽)

고하였으며 해남 시절에도 여러 지면에 실린 고정희의 글을 본 독자들로부터 팬레터가 왔었는데 고정희는 이 역시 항상 옆에 끼고 읽곤 하였다고 말했다.

위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정희는 현대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 이라든지 문학 창작 작품들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 정말 재미있습디다”와 같이 매우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감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독자로서 고정희의 편지가 이 지면에 활자화 되기까지는 편집진이 그의 관점과 평가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잡지가 1971년 당시 한국사회에서 발간되는 의의에 대해서도 나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여성이 만드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독자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일금 1백 50원을 주고 어디서 이번 호 같은 진귀한 양식을 살 수 있을 것이냐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진정 눈물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줄 두 번째 “신상”을 그리며-----.

전남 광주 고정희 드림. (필자 강조, 206쪽)

이 시기는 고정희가 광주 YWCA에서 일하던 시기로 맨 밑에는 “전남 광주 고정희 드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시기에 이미 고정희는 “유일한 여성이 만드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독자의 의무감을 느낍니다”라고 여성들끼리 모여서 여성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책의 발간 그 자체에 대해서 “진정 눈물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적고 있다. 당시 광주 YWCA에서 그와 함께 지냈던 회원들은 그 시절의 고정희를 가리켜 “갈급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라고 그의 왕성한 지적 욕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⁴⁰⁾ 이 <독자로서의 편지>를 보면 그가 광주에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를 갈망했던 삶의 편린을 읽어낼 수 있다.⁴¹⁾

『광주 YWCA 70년사』 기록에 의하면 YWCA 내에서의 청년활동은

40) 안희옥, 윤수자 씨 등의 인터뷰 참조.

41) 이 『新像』에 소개된 고정희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안내해 준 김미선 님(Univ. of Wisconsin-Madison, History Studies 박사과정)에게 감사를 전한다.

1969년 청년부로 독립하여 소모임 활동, 직장여성 클럽 등을 구성하였으며 70년대에 와서는 15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활동하였다.⁴²⁾ 바로 이 청년부 독립을 계기로 고정희가 광주 YWCA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정희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문학적 훈련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여성” “문학” 동료들을 얻게 된 것이다. 1973년 당시 광주 YWCA 공보출판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정자 씨의 제안으로 그 해 5월 백일장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당시 고정희가 공보부 간사를 맡고 있었다. 1973년 5월 23일 제1회 여성문에 백일장이 광주 양림동 계명여사에서 개최되었고 백일장 입상자들을 중심으로 독서클럽인 <여울물클럽>이 구성되었다. 최정자 씨는 당시 <여울물클럽>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적고 있다.

생각보다 작품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꼭 글을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았다 장원, 차상, 차하를 두고 열 명 정도를 장려상으로 했다. 그리고 입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모임을 탄생시켰다. 글을 쓰려면 우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서클럽으로 모였다. 독서클럽의 이름은 여울물, 잔잔히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세차게 파문을 일으키는 여울물과 같이 창작을 하자는 의도에서 지도교수님이셨던 최정순 교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 이후 6년 동안 백일장을 개최하였고 입상자는 자동적으로 Y회원이 되고 여울물에 가담하도록 하였다.⁴³⁾

그러므로 1973년 7월 2일 이후 고정희는 이 모임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과 문학적 교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창조적 자아를 키워 나갔다. 그러나 <여울물클럽>은 선생님을 모시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으로 운영되었을 뿐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책도

42) 광주 YWCA 70년사 편찬위원회, 『광주 YWCA 70년사』,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1992, 149쪽.

43) 최정자, 『여울물의 추억』, 『광주문학』 제6호, 광주문인협회, 1992, 20쪽.

출판하지 않았다. 『광주 YWCA 70년사』는 이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매달 1권의 좋은 문학작품을 읽고 한 회원의 발제와 함께 독후감, 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그 감상문을 Y회보 ‘여울물 독서 세미나’란에 연재하여 전체 회원이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 산문, 자작시 낭송회인 ‘여울물의 밤’을 매년 연말에 개최하였다. 여울물 클럽은 최정순 교수, 문병란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그 회원은 박애심, 최정자, 김선자, 임금자, 배경애, 홍경자, 오희남, 김원자, 고정희 등이며 곽은원 제15대 회장도 1978년부터 참여하였다. (156쪽)

이 모임이 10여 년간 약 20여 명의 회원으로 지속되어 가는 동안 고정희에게는 문학과 철학 분야를 섭렵하면서 그 이후 문학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는 시기였다.⁴⁴⁾

고정희는 이 <여울물클럽> 회원들 중에서도 특히 제5회 백일장에서 산문으로 당선된 최정희 씨와 친하여 1975년 한국신학대학 진학 후 광주에 내려올 때마다 그 댁에 묵으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최정희 씨는 고정희에게 광주 YWCA가 갖는 의미는 <여울물클럽>과 같은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부 간사를 하면서 청년세대와 직접 만나서 그들과 교류했던 경험이 더욱 몸에 와 닿는 실질적인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즉 1969년에 창설된 직장여성들의 모임인 <직녀클럽>에도 관여

44) 나는 <여울물클럽> 회원들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씩 언급하였고 동시에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73년부터 75년까지 약 2년간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만나서 함께 읽고 토론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해직교수였던 이득우 선생이 지도하였는데 <여울물클럽> 회원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감상위주의 독서클럽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토양이 척박했던 1970년대 광주에서 이 철학 프로그램은 한줄기 지적(知的) 샘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정희는 이 프로그램에도 가장 열심히 참여한 회원이었다고 한다.

했으며 전남대와 조선대 소속의 YWCA 대학부 회원들의 교육을 주로 맡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정희 씨도 고정희의 요청으로 <대학Y>의 <대화의 광장> 프로그램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학생들은 고정희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교주 모시듯 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당시 학생들의 질문이 매우 날카로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계급의식과 기득권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정희는 <대학Y>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았고 젊은 세대와 정신적 교류를 하는 터전으로 생각했으며 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차세대 교육에 매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아라 회장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으며 이는 1974년 겨울 한국신학대학으로 진학할 때 조아라 회장의 강력한 추천서를 갖고 갈 수 있던 배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광주 YWCA가 고정희에게 갖는 의미는 청년세대들과의 정신적 교류가 가능했었다는 점, 기독교 사회운동의 현장 실무를 통한 사회적 경험을 했다는 점,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중과의 호흡”을 몸소 체험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1970년대 초반, 20대 초반의 고정희는 자신의 내적인 고양을 위하여 힘쓰는 한편 <대학Y>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능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동안 광주에서 고정희와 함께 생활했던 동생 고성자 씨에 의하면 두 자매가 함께 기거했던 작은 방에서 벽에 기대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고 책 읽는 고정희를 보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고정희는 그 자세 그대로 책을 읽고 앉아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동생에게 “나는 이제 더 넓은 서울로 가야겠다”고 선언한 뒤 대학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3.2. 광주: <목요시>(1979-1986)

1978년 2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고정희는 “모교 목회 상담실에서 줄곧 권유해오던 조그만 중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서울에서 대구로 짐

을 꾸렸다.”⁴⁵⁾ 그는 1978년 봄부터 여름까지 반년을 대구에서 지냈는데 대구 반월동에 있었던 수석교회의 전도사를 하면서 당시 경북대 교수였던 김춘수 시인의 강의를 청강했다. 이하석 시인에 따르면 고정희는 당시 문단 일각을 풍미했던 <무의미 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론 당사자의 강의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청강 후에는 그 이론이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는 것을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곤 했으며 그런 내용의 산문을 지상에 발표한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⁴⁶⁾ 그리고 1978년 여름 광주 YWCA 프로그램 간사들이 전남대 데모사건에 연루되어 몽땅 기소되었으니 속히 광주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받았다. 고정희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명령이요 부름이었다”라고 썼다.⁴⁷⁾ 다행히 1978년 말에 모든 사건은 수습되었으나 고정희는 1979년 내내 광주 YWCA 대학생부 간사로 일했다. 바로 이 때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를 펴냈다. 이 첫 시집의 「책머리에」에서 고정희는 자신에게 광주 YWCA와 한국신학대학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인 79년 3월이었다. 시집 같은 것을 묶을 생각은 아예 없던 내게 최정희 형과 몇몇 친구들이 광주에서 첫 시집을 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펄쩍 뛰었으나 달을 넘기면서 그 제안에 동의하였고 친구들의 주선으로 이 첫 시집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나의 친정** 광주 Y는 내 생애에서 가장 화려한 출판기념회를 열어줬다. 모두가 문학권 밖에서 일어난 이 일을 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한 페이지로 간직하고 싶었다... **회고 하건대** 광주 Y가 내게 생의 길을 열어준 곳이라면 **수유리의 한국신학대학**은 생의 내용을 가르쳐준 곳이라고 부언하고 싶다. (필자 강조, 10-11쪽)

45) 고정희, 「책 머리에」,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평민사, 1985, 9쪽.

46) 이하석, 「봄바람 같은 이야기」, 『現代詩學』 제23권 8호(통권269호), 現代詩學社, 1991.8, 135쪽.

47) 고정희, 앞의 글, 10쪽.

여기서 고정희는 광주 YWCA를 “나의 친정”이며 “내게 생의 길을 열어준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광주 YWCA 강당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를 가리켜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한 페이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로 Y회원들에게 비춰진 고정희의 모습은 매우 답답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안희옥 씨는 그 시기 광주 YWCA는 우리나라 전체 YWCA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었고 특히 광주지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여성단체였지만⁴⁸⁾ 고정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더군다나 광주 YWCA에서의 활동으로 생계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수도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던 중 1979년 5월 육명심 사진작가가 『現代詩學』에 연재하는 각 지역의 문인활동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왔고 이를 계기로 강인한, 범대순 시인 등 당시 광주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모이게 된 광주지역의 시인들은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동인 모임을 매주 목요일마다 갖기로 하였다. 이 때 5명의 시인(강인한, 김종, 허형만, 고정희, 국효문)이 모여 모임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중 가장 먼저 1967년에 등단한 강인한 시인이 주축이 되어 <목요시>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1979년 가을에 <목요시> 동인은 『木曜詩』 제1집(핑크빛 표지)을 발간하였는데 그 시집의 앞에 “동인 선언”이 게재되었다.⁴⁹⁾

詩는 시인의 성실한 삶을 反芻하는 그 지적인 산물이며 무엇보다도 詩精神을 내포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올바**

48) 광주 YWCA는 1975년부터 기독교 운동체에서 공식화하기 시작한 민중논의에 동참하여 “민족의 주체인 민중”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의미로 1978년 6월부터 <민중논단>을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까지 참여한 강사진은 서남동, 한완상, 문동환, 현영학, 송기숙, 문익환, 김동길, 성내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민중논단> 프로그램은 1992년까지 2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광주 YWCA 70년사』, 162-164쪽).

49) <목요시>와 관련된 사항과 자료는 모두 강인한 시인의 도움에 의거했으며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른 주제와 올바른 아름다움이 있는 참다운 시를 지향하며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원문 강조; 2쪽)

즉 『木曜詩』가 지향했던 문학관은 참여와 순수로 나뉘었던 60년대 문학에서 나아가 두 방향을 모두 아우르며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모든 상업주의 거부—시의 기교중심의 상업주의 거부—선전일색의 또다른 상업성을 거부”하고 “시인은 언어의 주인으로서 운율있는 언어 사용을 지향했으며 주제없이 현란한 아름다움과 공허한 핏대를 배격한다”, “시정신이 투철한 시적 자아를 내포한다”, “올바른 주제와 올바른 아름다움이 있는 시를 지향하며 첫걸음을 내딛는다”⁵⁰⁾는 것이다. 이러한 순수 서정시를 표방한 <목요시> 동인 활동은 “시단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⁵¹⁾

『木曜詩』 창간호가 나올 바로 그 즈음, 1979년 7월 고정희의 첫 시집이 출판되었고 이 때 그의 곁에는 본격적인 문학창작 활동을 함께 하는 <목요시> 동인들이 있었다. <목요시>에서 함께 활동했던 강인한 시인은 고정희 시집 초판이 왜 발문 없이 발간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고정희는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1979년 7월)의 발문을 대구에서 알게 된 이하석 시인에게 부탁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시집이 출판되었다. 고정희는 시집이 출판된 이후에 이하석의 『발문』을 읽어보고 자신의 시어 “자궁”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해석(처녀가 원초적 사랑을 갈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너무 놀라서 출판된 시집이 배달된 후 <목요시> 동인들과 함께 『발문』 부분을 모두 칼로 베어냈다고 한다.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를 배송되어 온 꾸러미에서 꺼내어, 출판사로 직접 보내졌기에 읽어보지 못했던 시집의 발문을 읽고, 그녀

50) 제5권 『木曜詩 선집』에 게재된 “목요시 동인 선언” 참조.

51) 『木曜詩』, 제2집, 광주: 백제출판사, 1980, 2쪽.

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시 해석에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랐다. 시집 도처에 나오는 모성 상징의 “자궁”이라는 시어로 인하여 마치 시인이 섹스만을 추구하는 여성으로 비쳐졌기 때문이었다. 면도칼로 시집의 뒷부분에 붙은 “발문”을 동인들과 함께 모두 잘라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²⁾

결국 고정희의 첫 시집은 『발문』 없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⁵³⁾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하석 시인은 고정희 사후 『現代詩學』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그녀의 시에 보이는 내면세계를 주로 얘기하여 해설을 써서 보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 말라>고 은근하게 발뺌을 했다. 그녀는 한참 지나 해설없이 시집을 내겠다고 양해를 구해왔고 나는 쉽게 그것에 찬성했다”라고 썼다.⁵⁴⁾

뿐만 아니라 출판 이후 첫 시집의 제목에 나오는 “술틀”이 “수틀”로 변경되는 과정 역시 우리나라 문학계의 남성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첫 시집의 제목에 대해 고정희는 재미있는, 동시에 의미있는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술틀’이란 단어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틀’로 바뀌서 말하거나 쓴다는 것입니다. 작가 자신이 아무리 술틀이라고 고쳐 말해도 활자화된 것은 어김없이 수틀로 나오곤 했으며 바로 그것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이 아니겠느냐며 그는 화도 안내고 말하였습니다.⁵⁵⁾

52) 강인한 시인은 2008년 『문학나무』 봄 호에 『고정희』라는 시를 게재하였는데 이 시의 내용과 詩作 노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53) 이 첫 시집은 1985년 9월 15일 평민사에서 <평민의 시> 시리즈 중 17권으로 출판되었으며 1979년 출판된 시집은 초판으로 절판되었다. 고정희는 이 시집의 『책머리에』에서 “첫 시집은 기증도 별로 못한 채 초판으로 절판시키고 재판을 찍지 않은 채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월 탓일까, 첫 시집에 대한 결백증 같은 것이 사라진 이즈음에 평민사의 배려로 재판을 내놓는다”(1985년 8월 10일)라고 쓰고 있다.

54) 이하석, 앞의 글, 136쪽.

55) 박혜란, 앞의 글, 58쪽.

박혜란은 위 글에서 고정희가 여성 시인으로 겪어왔던 또다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고정희가 광주에 있을 때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인적으로 많은 충고를 받아왔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사회의식이 너무 강하다”, “여성답지 못하다”, “순수시를 써야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정희는 “나는 자신에게 절박한 것을 써야 그것이 시라고 생각한다. 창조에너지에 무슨 남성여성의 구별이 있는가?”⁵⁶⁾(『여성신문』대담)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⁵⁷⁾ <여울물클럽>에서 가장 친했던 최정희 씨에 의하면 고정희는 자신의 시쓰기 작업을 “피 짜내는 과정”으로 묘사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고정희에게 <목요시> 동인 활동은 전라남도 문학인, 그것도 시인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木曜詩』 제2집(초록색 표지)은 1980년 5월 10일에 발행되었으며 제2집 출판부터 김준태, 송수권 시인 등이 참여하였다. 제2집 머리말에서는 다시 시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쓰고자 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들 삶의 진실을 쓸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시는 진실의 표현이란 것을 우리는 재확인”하고 “가장 확실한 것만을 시로써 말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곧 일주일여 후에 광주항쟁이 발생하고 <목요시> 동인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게 된다. 그동안 <목요시> 동인이던 김준태 시인이 1980년 6월 2일자 『전남매일』 1면에 광주항쟁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게재하였다. 그 후 그는 보안대에 끌려갔고 근무하던 전남고등학교에서 강제해직 당하였으며 그 신문은 당시 군부독재의 언론 검열에 걸려 본문의 2/3 이상이 잘려나가는 수모를 겪었다.⁵⁸⁾ 그러므로

56) “창조 에너지에 무슨 남성여성의 구별이 있는가?”라는 고정희의 반문은 버지니아 울프가 1925년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유명한 강연 “여성과 소설”(Women and Fiction)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창조에너지와 양성성(androgyny) 관련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울프의 이 강연은 1928년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져 출판되었다.

57) 박혜란, 앞의 글, 61쪽.

58) 당시 언론검열을 받았던 『전남매일』 1면과 3면에는 당시 검열당국의 검열필 도장

바로 곁에서 이러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고정희로서는 광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 1981년 5월 25일에 발간된 『木曜詩集』 제3집(푸른색 표지) 머리말에서는 “그토록 지루하던 여름 장마와 겨울 폭설 속에 우리 동인들은 서로 껴안으며 서로를 확인하는 침묵 속에 그만 한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제 세 번째 작품집을 또다시 세상에 내놓으며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킨다”라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비극적인 광주항쟁의 한가운데에서 시인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 편의 시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한 편의 시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시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 속에 처한 인간의 현재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시는 여타의 문학 언어 보다 강한 명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시가 민족이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 한줄기의 가느다란 각성의 빗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를 세우고자 한다. (필자 강조, 2쪽)

이 머리말은 당시 <목요시> 동인들의 생각을 담은 것이지만 우리는 1981년 출판된 제2시집 『실락원 기행』에 게재된 『新연가·4-휘몰이』에

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며 당시 편집국장이던 신용호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2008년 5월 5·18기념재단에 사료로 기증되었다. 신용호 씨는 “80년 5·18이 발발하자 더 이상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신문사 스스로 발행을 중단한 뒤 12일만에 발행을 재개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기사보다는 시로써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김준태 시인의 시를 신게 되었으나 계엄사에 의해 3분의 2 이상이 잘려나갈 정도로 언론통제가 심각했다”고 술회했다(5·18기념재단 보도자료 “5·18직후 신군부의 가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희귀자료 발견” 참조). 이 시는 광주항쟁을 문학작품을 통해 폭로한 최초의 작품이며 지금도 <국립5·18민주묘지>의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 부조의 형태로 전문이 새겨져 있다.

등장하는 광주 시민,⁵⁹⁾ 또 1983년 발간된 제4시집 『이 시대의 아벨』에서 “아벨”로 상징되는 광주 민중의 이미지를 창조해 낸 고정희의 시적 자아가 싹트게 된 계기를 엿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하다. 제3집에서부터 『木曜詩』에서 『木曜詩集』으로 동인 시집의 제목이 바뀐 것 역시 1980년대 사회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때부터 전두환 정권하에서 정기간행물이 같은 이름으로 계속 발행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름을 약간씩 변경하여 동인 시집을 출판하였기 때문이다. 1982년 5월 15일 발간된 『木曜詩』 제4집(고동색 표지)의 머리말에서는 제3집 발간에 대한 후기평이 이렇게 쓰여 있다.⁶⁰⁾

『木曜詩』 제3집은 기념비적인 작업들이었다. 우리가 값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木曜詩』 1981년 여름호를 받아본 이들은 누구라 없이 목구멍을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아니 그 이상의 충격을 느꼈다고들 하였다. 삶의 가장 치열한 한가운데서 쓰여진 시였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슬프리만큼 참담한 작업이었다. (2쪽)

이와 같이 제3집에서 드러난 일체감의 동인 의식은 제4집에서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시의 언어”가 <목요시> 동인들의 화두임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다시 시의 언어를 이야기하자.

80년대의 길고긴 터널을 걸어가는 우리의 시인들은 터널의 끝에서 터져 나올 빛의 언어가 우리의 것이어야 함을 믿는다.

우리가 심는 언어가 비록 척박한 토양에 뿌리할지라도 언젠가는 튼튼하

59) 이 시의 첫째 연은 “여보시오 광주 시민 문 좀 열어주시오”로, 둘째 연은 “여보시오 광주 시민 귀 좀 빌어 주시오”로 시작하여 셋째 연은 단 한줄 “여보시오 광주 시민 혼 좀 열어두시오”로 끝맺고 있다.

60) 이때부터 송수권은 빠지고 6인 시집으로 발행되었으며 김수영의 미발표작도 발굴하여 게재하였다.

고 아름다운 역사적 언어와 예술적 언어로서의 꽃을 피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질긴 생명력과 감동의 빛나는 개화를 위하여 또다시 우리는 네 번째 언어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린다. (제4집, 2쪽)

그로부터 일 년 뒤인 1983년 5월 20일 『木曜詩선집』(崔夏林編)이라는 또다시 변경된 제목으로 제5집을 실천문학사에서 발행하였고⁶¹⁾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제1집에 게재되었던 “동인들 선언”을 재수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순수시를 지향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역사적 언어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언어이어야 할 우리의 언어를 위한 조탁의 작업은 쉬지 않으며 쉴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옳을 것”이라는 동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고 확인하는 제스처이기도 하다.⁶²⁾ 그리고 첫 출발 지점에서는 약간씩 다른 목소리로 구성되었던 동인들의 작품이 제5집에 이르러서는 “동시대인들의 삶과 밀착된 사랑을 노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의 구심점을 향한 동질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하고 있다.⁶³⁾ 광주항쟁 발발 이후 3년이 경과한 이 시기에는 <목요시> 동인들 모두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향한 동질성”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집에서부터 제4집, 제5집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동인 시집의 제목이 변경되어야만 발간할 수 있었던 현실 역시 고정희에게 ‘남도출신 시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과 시적 자아를 강화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목요시>는 고정희에게 광주지역에 뿌리박고 문학적 대화를 함께 나누는 동인 활동을 통하여 그가 토착화된 시적 자아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의 혹독한 정치적 상황은 그로부터 3년 동안이나 <목요시> 동인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시집 발간 역시 중단되었다.

61) 1982년 겨울부터 장효문 동인이 합류하여 제5권 『木曜詩선집』부터 참여하였다.

62) 『木曜詩선집』, 崔夏林編, 제5집, 실천문학사, 1983, 2쪽.

63) 앞의 글, 2쪽.

1986년 10월 25일 서울에 있는 도서출판 청하에서 발간된 『목요시』⁶⁴⁾ 제6집은 고정희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때 부제로 “넋의 현실적 생활로 빛나라”를 내세웠으며 표지는 외국작가의 판화를 사용하였고 권두언도 고정희가 썼다. 고정희가 주도했던 제6집에는 김종과 국효문 시인의 시가 게재되지 않았다.⁶⁵⁾ 고정희는 “여섯번째 선언”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암흑의 시기에 시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순수시를 지향했던 <목요시> 동인들의 입장과는 달리 전투적, 참여지향적 색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목요시> 동인들의 입장이 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 즈음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의 기둥은 말이다.

어둡고 우울했던 3년간의 침묵 끝에 이렇다할 변모나 설명도 없이 『목요시』가 건져낸 말의 실체들을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내어 놓는다.

1

말이 철학이거나 역사이거나 이데올로기일 수는 없으며 그러나 삶의 중심에서 뜨겁게 용솟음치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앵무새로 전락하거나 허수아비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절감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은 거짓시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

2

그러나 '80년대 시는 말의 힘을 잃어버렸고 말의 자유를 잃어버렸으며

64) 제6집의 제목은 한글로 표시되어 있다.

65) 김종 시인(당시 조선대 교수)은 비리에 연루되었으며 국효문 시인은 당시 민정당에 잠시 참여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정희는 이들의 시를 제6집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인한 시인 인터뷰 참조)

말의 독자성을 잃어버렸고 말의 자존심을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할 말,
말이 입어야할 혼,
혼이 지녀야할 노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는 결국 거친 시대의 수난을 극복하는 말이어야 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혼이어야 하며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노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순례의 길목에서 『목요시』는 다시 미혹의 안개를 건너가는 여섯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다. (필자 강조, 2-3쪽)

이 글을 보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는 급진적이고 명징해진 동시에 매우 날카로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부독재 시대에 맞서기위해 시인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 “말”이며 말의 힘과 “시”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결국 “시는 거친 시대의 수난을 극복하는 말이어야 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혼이어야 하며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노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가 급진적이며 날카롭게 변하게 된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광주항쟁에 대한 고정희 자신의 부채 의식이고 그로 인해 고정희는 광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시인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3.3. 광주: 광주항쟁과 주먹밥(1987-1988)

“광주”는, “광주항쟁”은 1980년대 고정희 삶의 가장 기초이자 중심에 위치한 핵이었다. 1980년 이후 그의 삶과 의식, 치열한 작가정신, 그리고 작품 활동, 이 모든 것들은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와 항상 연

결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박혜란은 1984년 가을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고정희를 여성문학 특강 강사로 초청했을 때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여성문학사를 통시적으로 훑어주고 나서, 그러나, 그는 갑자기 “광주를 잊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일종의 기습이었다”고 그와의 첫 만남을 회고하였다.⁶⁶⁾ 실제로 고정희는 1979년 내내 광주에 머물렀으나 1980년 이른 봄에 광주를 떠났다.⁶⁷⁾ 그리고 1980년 여름에 잠시 돌아왔다가 곧 다시 떠났다. 그러므로 광주항쟁에 대한 고정희의 부채의식은 1980년대 내내 그의 머리 속에, 또 그의 시에 녹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정희는 1987년 다시 광주에 내려와 광주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항쟁이 시시각각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가를 취재하였다. 이 기사는 이듬해인 1988년 5월 『월간 중앙』에 발표한 르포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정희가 1984년 여름부터 [또 하나의 문화] 동인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에서는 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기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의 글쓰기 내에서도 볼 수 있다.⁶⁸⁾ 1987년 이 기사 작성을 위해서 고정희를 며칠 동안 현장

66) 박혜란, 앞의 글, 56쪽: 필자 역시 고정희와 첫 만남에서부터 똑같은 경험을 하였다. 1987년 7월 중순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고정희를 처음 만났을 때 19세기 영국 여성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케임브리지대학교 거튼 칼리지(Girton College)의 역사관에 전시된 당시 자료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듣고만 있던 고정희는 갑자기 내게 광주 출신인지를 질문하였다. 나는 그 순간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하였다. 곧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을 때 그의 얼굴을 스쳐가는 실망의 빛이 역력하였다. 이는 그의 의식 속에서 “광주”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음을 반영하는 일례이다.

67) 실제로 1980년 5월 18일에 고정희는 대구에 있었다고 한다. (조옥라 교수 인터뷰)

68) 이 글을 필자에게 소개해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안진 교수는 후에 광주항쟁과 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는 고정희의 이 글이 수많은 광주항쟁 관련 기록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글로 평가받았다고 전하였다.

안내하였던 임영희 당시 송백회⁶⁹⁾ 회장에 의하면 그 당시는 광주항쟁 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므로 광주항쟁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어화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고정희는 이 글의 첫 문장에서부터 자신이 “광주 민주여성운동 세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구체적인 살림을 도맡았으며, 개인행동이 아닌 완전한 「민주공동체」의 형성, 혹은 10일간의 「광주해방구」 실현에 집단적 代母역할을 용감하게 수행해 낸 광주 민주여성운동 세력은 5월 항쟁 이전까지 남성운동권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⁷⁰⁾ (402쪽)

그리고 곧 이어 광주의 사회문화적, 지역적 특성과 광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 및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런 항쟁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학농민 전

69) 송백회는 1978년 12월 광주 운동권 남자들의 부인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민주여성단체이다. 고정희는 이 단체에 대해서 “송백회는 민주화 세력권의 여성들과 새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섭렵하고 1979년 1년 동안 운동단체로서의 조직을 확장하는 한편 1차적으로 민주운동권 인사들의 옥바라지 사업을 표면에 내걸면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운동역량의 제고를 위한 사회과학 분야와 사회운동, 근대사 및 경제·정치·역사구조에 대한 소그룹 스터디를 주도해 나갔다. 여기에는 구속자 가족, 교사, 운동가, 근로자 등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방향은 「여성 민중해방」이라는 크고 먼 길의 목표가 맥을 잇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03쪽). 그러므로 고정희는 이때부터 “여성 민중 해방”이라는 개념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는 광주항쟁의 구체적인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70) 고정희는 이 때의 취재경험에 바탕하여 「광주의 눈물비」 시집의 「제2부 눈물의 주먹밥」 부분을 「암하레즈 시편」 1에서 19까지 각기 다른 주제를 담은 19편의 시로 쓰고 있는데 이 중 「눈물의 주먹밥」은 8편에, 그리고 「십일간의 해방구」는 10편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쟁에서 의병으로, 또한 광주학생반제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민중운동의 전통과 맥락이 혈연적으로 가계적으로 실존하고 있었다. 둘째, 4·19 이후 민주화 통일운동의 급진적 흐름이 잠적해버린 뒤에 유신독재의 전 기간을 통해 선배에서 후배로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편 학생운동권은 민청학련 사건과 민주교육지표 사건을 계기로 재삼 다져지고 확충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세째, 광주는 농촌으로 둘러싸인 소비도시로서 외곽에 광범위한 기층 농민들의 생산지와 연결되어 농촌현장의 농민운동 세력과의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광주에 사는 모든 학생·시민 대중은 거의 모두가 농촌공동체적 경험에 뿌리박은 농민의 아들·딸이었다. 넷째, 유신독재의 전 기간을 통하여 광주는 지역운동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왔으며 이미 1978년에 이르러 각계의 역량 분담이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402-403쪽)

위와 같은 고정희의 분석은 고정희 자신이 광주항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광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시민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무정부 상황에서 시민들 스스로 자조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뜨거운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였는가에 대한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고정희는 이 글을 거의 생방송 중계하듯이 시시각각 각기 다른 현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역사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장면들을 언어와 글쓰기로 매우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 중에는 광주 여성들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장면도 있다.

특히 여성들이 몇명 붙들려 오면 여럿이서 겹옷은 물론 속옷까지 북북 찢어발기고 아랫배나 유방을 구두발로 차고 짓밟고 또는 머리채를 휘어잡아 머리를 담벽에다 쿵쿵 소리가 나도록 짓찧었다. 손에 피가 묻으면 피

해자의 몸에다 쓱 문질러 닦으며 웃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지옥 풍경이었다. (필자 강조, 408쪽)

당시 부상자들이 몰려들었던 병원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고정희는 “수술이 진행될 때마다 의사와 간호원들의 눈물이 상처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적고 있다.⁷¹⁾ 그러나 이러한 지옥 풍경 속에서도 전옥주⁷²⁾와 같은 여성들 기록 부분에서는 그녀가 시시각각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기록하면서 그 단락에는 “싸우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5월 20일, “항쟁 3일째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활동은 서서히 조직화되고 있었다.”⁷³⁾ 이에 대한 고정희의 취재기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길가에서는 아들딸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운집하기 시작한 시위대열에는 가정주부·고등학생·노년층을 비롯하여 할머니·술집 접대부(성매매여성)·점원·회사원·남녀 근로자·정

71) 고정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월간중앙』, 1988.5, 412쪽.

72) 전옥주는 당시 평범한 미혼여성이었으나 5월 19일부터 22일 체포되는 순간까지 용감하게 가두방송을 감행하였다. 전옥주의 체포에 대해서 고정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 무렵 항쟁기간 동안 선전조의 선두였던 전옥주가 차명숙과 함께 가두방송을 하다가 도청앞 시위대 속에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군중속에서 [저 여자 간첩이다]라고 외쳤고 신체 건강한 40대 남자 몇 명이 그를 끌고 가버렸다. 전옥주는 중앙정보부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 받으며 간첩누명으로 시달리다가 이튿날 통합병원 정신이상자 병동으로 이송되었고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거부하자 그 다음엔 독침사건 누명을 씌웠으며 그래도 허위 자백에 불응하자 4일째 되던 날은 김대중 씨와의 관련혐의로 바꾸었다. 그래도 불응하자 이제는 방화범으로 바뀌어져 광산경찰서로 압송되어 옷을 발가벗긴 채 고문을 당했으며 이때 받은 고문으로 그는 여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리고 전옥주는 포고령 위반 등으로 15년형을 언도받고 광주교도소로 이감, 81년 4월 3일에야 특사로 석방되었다)”(413쪽).

73) 고정희, 앞의 글, 409, 410쪽.

비공·녕마주이 등 전 계층의 시민이 합세하여 독재의 아성을 향한 함성을 뿜어 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아무 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광주 전역에 걸쳐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조직 아닌 조직 활동에 들어갔다. 도로 주변 상점이나 주택가 여성들은 커다란 물통이나 세수대야 등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밖으로 내놓았고 리어카와 자전거 또는 합지로 지하상가와 공사장 주변에서 돌과 자갈을 실어 날랐으며 다른 편의 주부들과 요식업소 여종업원들은 손에 손마다 물수건과 치약을 준비하여 시위대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최루탄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 또한 시내 전역에서 시위대를 위한 음료수가 공급되고 빵과 주먹밥 등 요기거리가 날라지기 시작했다. (410쪽)

위 단락에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에서는 5월 20일 저녁과 21일 오전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하면서 격전장으로 변한 금남로에 모여든 10만 인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그 중에서도 “주먹밥”으로 엮어진 “식사의 연대”, 나아가 “뜨거운 시민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이 단락은 시각적으로도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으므로 조금 길지만 그대로 인용한다.

손자를 끌고 시위장에 나온 할머니, 어린 꼬마를 데리고 나온 가정주부, 근무를 포기하고 나온 여성근로자들이 대거 시위대에 참여했으며 이날 아침부터 시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시위군중과 청년들을 위해 여성들이 마련한 음식들이 길가에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면 어디든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길목을 지키다가 지나가는 시위차량을 멈추게 하고는 김밥과 주먹밥을 한 함지씩 실어 주는 것이었다.

광주시민이면 아무나 찾아와 요기를 할 수 있었고 어느 곳이나 푸짐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시장 아주머니들이 가장 열성이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의 참상을 톡톡히 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양동시장·대인시장·학동시장·산수시장·서방시장 등에서는 조직적으로 밥과 반찬이 공급

되고 있었다.

전투가 치열했던 금남로에는 동별로 나온 수백 명의 가정주부들이 김밥을 함지에 담아 도로에 펼쳐 놓고 시위대에게 나눠 주었으며 주먹밥·달걀·김치·음료수·빵 등 각양각색의 음식이 형제자매들의 손에 아낌없이 나누어졌다. 손매듭이 굵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이 여성들은 이들 시위대 모두를 식구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요기를 시켜주는 일이 곧 자기 혈육을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였다. 시위대들은 그 음식들이 차량 위로 실려질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의감에 불탔다.

이 주먹밥이야말로 광주 공동체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밥이었다. 밥을 먹는 시민들은 자신이 광주 공동체가 뽑아서 민주화 전선으로 내보낸 전사임을 새롭게 자각했고 밥을 해준 주부들은 비인간적인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것들을 몰아내는 데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바람이 나서 밥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식사의 연대**는 금남로의 시위 군중을 새로운 전의에 불타도록 만들었고 **뜨거운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필자 강조, 411쪽)

위 글에서 고정희는 광주항쟁 현장에서의 “주먹밥”을 “광주 공동체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994년 설립된 5·18기념재단에서 발행하는 잡지명이 『주먹밥』임을 감안할 때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주먹밥’의 의미를 찾아내어 호명한 고정희의 안목이 놀랍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광주여성들이 시민군들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상황과 시민군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남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여성들은 후진에서 필요한 모든 사무절차와 물품보급과 자금확보, 취사조 담당, 유인물 제작과 선전조 담당, 사망자 및 부상자 신원 파악 등을” 맡았으며 시민군이 도청에 본부를 정하면서 취사부와 상황실 등에 “많을 때는 2백여 명까지 상주하여 일했다.”⁷⁴⁾ 5월 24일 부터는 시민군 관련 모든 정보들이 당시 대의동에 위치하고 있던 YWCA로 합류되었고 5월 25일 최후

까지 투쟁하기를 결의한 광주민중항쟁지도부가 밤 10시에 YWCA를 중심으로 탄생함으로써 도청 내무국장 부속실에 항쟁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조직개편에서 기획조, 홍보조, 모금조, 취사조가 새로 결성되면서 YWCA를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던 50여 명의 여성들도 다소 자리바꿈이 있었다.⁷⁴⁾ 필자가 만난 임영희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도청과 YWCA는 도보로 10분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윤상원 등 시민군 최후의 4인이 도청에서 마지막 투쟁을 하고 있을 당시 YWCA 내에는 조아라 목사 등 약 20여 명의 여성들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그들의 정신적 지지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⁷⁶⁾ 결국 5월 27일 “새벽 5시, 광주는 계엄군에 의해 완전 점령되었다.”⁷⁷⁾ 그 후 진행된 대대적인 검거에서 광주항쟁에 참여했던 여

74) 고정희, 앞의 글, 416쪽.

75) 고정희는 이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홍보조에 김정희 · 이현주 · 임희숙 등이 적극 가담하였고 임영희 · 이행자 · 정유아 등은 대자보, 모금활동, 리본제작, 쥘기대회 준비 실무를 맡았으며 구속자 가족이며 근로자 출신인 이정(당시 31세)이 3개 조로 구성된 취사부 책임자가 되어 11명의 여성팀(여대생 · 송백희 회원 · 근로자 · 여고생)을 이끌고 도청으로 들어가 25일 밤 11시 도청 식당부를 인수 맡았다. 당시 가톨릭 노동운동권 출신 전청자가 주방책임 맡고 있었는데 이정은 주방 안에 광주지역 주부들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주먹밥과 김밥, 음료수, 달걀, 각종 음식물의 엄청난 양에 놀라 까무라칠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그만큼 구체적 살림살이에 광주여성들의 결속감(solidarity)은 무서운 에너지로 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필자 강조, 415쪽). 이와 같이 고정희는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결속했던 광주여성들의 목숨을 건 연대에 주목했다.

76) 광주 YWCA는 1984년 11월 30일 대의동 회관에서 유동 신축회관으로 옮겼다. 현재 광주 YWCA 대의동회관 옛터는 <광주항쟁 사적6호>로 지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새겨져 있다. “5월 24일부터 ‘민주시민회보’를 제작하여 광주항쟁을 전국에 전했으며 민주인사들은 이곳에서 시민의 희생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5월 27일 새벽 도청을 공략하던 계엄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었고 최후의 항전에서 많은 시민군이 희생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간사로 일할 당시 속속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건물이 계엄군의 총격을 받는 위기의 순간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도청내의 시민군을 정신적으로 지원했던 여성들이 상주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정희에게는 그 느낌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77) 고정희, 앞의 글, 416쪽.

성들은 다른 연루자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어떠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조직 활동이 아닌 자발적인 개인행동으로 끝까지 진술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광주항쟁 기간 동안 여성들이 벌인 눈부신 활동은 사실상 감추어졌고 그 결과 혈안이 된 검거망에서 비켜섬으로써 “광주항쟁 평가 과정에서 자칫 소멸해버릴 여지를 담게 되었다.” 그렇지만 고정희는 “그러나 5월항쟁 전 기간을 통한 이름없는 여성들의 눈물어린 활약상은 광주시민들의 가슴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라고 적고 있다.⁷⁸⁾ 그러므로 이 글은 그의 후기 시집 『저 무덤위에 푸른 잔디』와 『광주의 눈물비』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수난의 어머니”, “어머니 하느님”, “여성 민중”, “눈물의 주먹밥”, “십일간의 해방구” 등의 시적 상상력을 추론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의 끝부분에서 고정희는 “이 모든 여러 단체에 소속된 광주 민주 여성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광주항쟁 전후 여성활동가들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광주여성은 누구나 5월항쟁을 기점으로 대단한 정치 역량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성숙한 민주해방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야 우리는 서서히 지금까지 여성들의 활약들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송백회 중심의 옥바라지나 민가협 중심의 석방투쟁, 구속자 중심의 엄청난 권리회복 투쟁은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점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민주화 투쟁이 국민의 절반인 여성해방, 그보다 앞서 1천만 여성 민중의 해방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보조역에서 일보 전진하여 주체적 여성운동을 성취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광주항쟁은 결국 지식인 여성에서 출발하여 기층 여성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광**

78) 고정희, 앞의 글, 417쪽: 광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 여성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영문 저서의 맨 앞에도 “to all the nameless women having fought state violence in Gwangju Uprising”이라는 헌사가 있다(Jena Ahn· O'Bog Park· Kyungsoo Le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2013).

주항쟁의 정신이다.』(필자강조, 417쪽)

이와 같이 이 글은 고정희가 광주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글이며 19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문화적 담론이 고정희의 시세계와 어떻게 상호 소통하고 있었는가를 제시해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 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80년대 후반 고정희의 시세계에 등장하는 “여성 민중”에 대한 개념은 광주항쟁에서 보여준 “여성 민중”의 구체적인 모습과 활약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도청이 함락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YWCA 여성 회원들이 시민군 최후의 4인에게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점과 1980년대 초반 서슬 퍼런 당국의 감시 속에서도 5·18 관련 행사들이 대의동 YWCA 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열렸던 점 등은 고정희에게 기독교 민중 신학에 기초한 “여성 민중”의 개념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⁷⁹⁾

4. 서울: 수유리와 ‘민중의 예수’

4.1. 서울: 수유리(1975-1978)

고정희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만큼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은 그의 시 전체를 아우르는 요소로 기독교적 상상력을 꼽고 있다. 김영미는 “이 종교적 색채는 시 전체를 관류하는 상상력의 핵이며 고정희 시의 본원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가 노래하는 모든 장면들에서

79) 광주항쟁의 역사 속에서 이토록 중요한 YWCA의 역할에 대해서 『광주 YWCA 70년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본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에 의해 가능했었다. 십자가 죽음의 두려움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론지 피해 버렸지만 그 곳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키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여인들의 용기였다”(181쪽).

는 신의 체취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적고 있으며⁸⁰⁾ 노창선은 “기독교적 세계인식은 고정희 시의 출발이자 귀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¹⁾ 유성호 역시 고정희 시를 기독교 문학적 측면에서 고찰했는데 “개인 고통을 우상화하고 실존적 자기구원에 탐닉되어있는 기독교 의식의 폭을 역사적 지평으로 넓힌 기독교적 역사의식의 한 본보기”라고 정의하면서 고정희의 기독교적 작품세계는 “기독교를 절대적 구심으로 놓은 배타적 세계인식으로서의 시세계가 아니라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신의 뜻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추구해내려는 시인의 성실한 노력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세계”로 정의하고 있다.⁸²⁾ 또한 소재로서의 기독교를 탈피한 그의 시세계와 기독교 정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기독교 정신 또는 이념이 ‘종교적 도식’이 아니라 넓은 현실의 세계를 면밀하게 살피내는 적극적인 인식의 한 패러다임을 예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⁸³⁾ 고정희를 우리나라 기독교 문학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구현해 낸 시인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김승구는 고정희 시세계에 나타난 여성, 민족/민중,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여성, 민중, 민족과 같은 범주 역시 기독교라는 보다 근원적 범주에서 파생한 범주”로 보고 고정희 시세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연구는 기독교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⁴⁾ 김문주는 고정희 시에서는 신앙의 대상을 향한 강렬한 희원이나 부재하는 신에 대한 분노가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암담한 현실을 감내하는 기지로서 “기독교적 영성”이 작동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영성이 “그녀의 시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테마, 즉 민중의 고난과 역사

80) 김영미, 『神의 저편: 고정희론』, 이화현대시연구회 편, 『행복한 시인의 사회』, 소명출판, 2004, 106쪽.

81) 노창선, 『고정희 초기시 연구』, 『인문학지』, 제20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67쪽.

82) 유성호, 『고정희 시에 나타난 종교의식과 현실인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집, 한국문예비평학회, 1997, 81쪽.

83) 유성호, 앞의 논문, 91쪽.

84) 김승구, 앞의 논문, 251쪽.

적 현실을 바라보는 거점”이라고 주장한다.⁸⁵⁾ 이와 같이 고정희가 그만의 독특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은 바로 한국신학대학과 4·19 묘지가 위치한 “수유리”이다.

고정희가 한국신학대학에 재학하던 1970년대 중반은 한국 기독교계가 민주주의적 가치가 억압받던 당시 한국사회의 현실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경향을 보였던 시기이다. 즉 성서의 교리나 상황을 민중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예수의 해방이나 구원을 현실에서 이룩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삼은 이른 바 해방신학적, 민중신학적 관점과 실천이 대두되었다. “민중”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초반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의 폭발적인 운동을 직접 체험한 학생운동에서 수용하기 시작하여 1974년 민청학련의 민중, 민족, 민주선언 등을 거치면서 학생운동 내부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기독교 운동에서 “민중” 개념이 최초로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정희가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한 1975년의 일로 이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1975년 3월 안병무 교수가 ‘출옥교수 환영 3·1절 강연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민족은 있어도 민중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중이 민족의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민족은 있어도 민중은 없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정말 실재하는 것은 민중이고 민족이란 대외관계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개념인데 언제나 내세운 것은 민족이었고 민족을 형성한 민중은 계속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 밑에 수탈 상태에 방치되어 왔다.

우리 역사는 계속 외세의 침략과 위협을 받아왔기에 민족의식이 강했으며 민중은 나라 사랑을 지상의 과제로 알았기에 민족의 운명을 내세우는 정부에 무조건 충성을 보여왔으나 민중은 정부로부터 가장 푸대접받는 역사가 계속 됐다. 민중이 민족을 형성하고 그것을 지킬 대권을 정부에 맡겼는데 바로 이 민족이 개념화되어 민중을 혹사 착취하는데 이용되는 일이 오늘

85) 김문주, 「고정희 시의 종교적 영성과 ‘어머니 하느님’」,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21쪽.

날까지 계속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민족도 없고 민중도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정부만이 있다는 말이다. (『민족 민중 교회』, 160)

이 강연은 후일 민중 신학으로까지 발전한 신학적 논의 발전의 효시를 이루었다.⁸⁶⁾

이러한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장한 쪽은 기독교 장로회였는데 광주 YWCA와 한국신학대학 모두 기독교 장로회였다. 더군다나 당시 한국신학대학은 절대권력, 절대적 독단, 교권주의, 신학적 근본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곳으로 한국 진보적 기독교의 산실이 되었으며 민중 신학의 모태가 되었고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고정희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첨예한 문제의식을 전수한 진보신학계의 핵심 공간 속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다.⁸⁷⁾ 그의 초기 시중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는 제2시집 『실락원기행』(1981)에 실린 시 『旗』이다.

우리들은 그날도 예배실에 모였다
백발이 성성한 老스승은

86) 같은 시기에 카톨릭에서도 <정의구현사제단> 명의의 “민주, 민생을 위한 복음 운동”이 발표되었다. 짧은 글 속에서 민중이라는 말이 무려 24회나 사용된 이 선언문에서는 “민중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 속에서 민중 개념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광주 YWCA는 이런 “민족의 주체인 민중”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의미로 1978년 6월부터 <민중논단>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광주 YWCA 70년사』, 광주: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1992, 163쪽).

87) “1940년 설립된 조선신학원을 전신으로 하는 한신은 1951년 한국신학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58년부터 용산구 동자동을 떠나 수유리에 캠퍼스를 마련, 이른바 수유리 시대를 연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신은 진보주의 신학의 요람을 넘어서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민주화 투쟁에서도 선봉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학 자체가 필연적으로 가 닿는 결론이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민중해방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리라”(김남일, 『민중신학자 안병무 평전: 성문 밖에서 예수를 말한다』, 사계절, 2007, 194쪽).

옆광 번쩍이는 면도날을 들더니
 우리들 교기를 깊숙이 찔렀다
 죽음처럼 조용한 눈과 눈에서
 무형의 피흘리며 필력이는 기,
 무모하게 찔룩이는 우리들 뉘 위로
 유난히 빨갛게 빛나던 십자가

가끔 우리는 예배실로 들어갔다
 어둠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기를 바라보며
 聖痕처럼 확실한 우리들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全身의 아픔으로 목놓아 울었다

그러나 이 『旗』라는 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는 제3시집 『초혼제』에 나오는 『化肉祭別詞·6-기를 찢으시다』⁸⁸⁾에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부분은 수유리로 상징되는 한국신학대학 시절 그의 생각의 핵심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단 위에 선 스승의 오른손에는
 시퍼런 면도날이 번쩍이고 있었지

88) 이 교기를 찢은 사건은 실제로 고정희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전인 1973년 늦가을에 일어났다. 1974년 1월 발동된 긴급조치 1호와 4월에 터진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 등의 정국에서도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은 전국 최초로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였고 정부는 반정부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제적하라고 협박하였다.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은 예배실에 모여 농성으로 맞섰다. 하루는 김정준 학장이 예배 설교 중에 면도칼로 강단에 있던 교기를 그어버린다. 독재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적당한 학생들이 돌아오면 그 인원수대로 한 뭉씩 잇겠다.”(김남일, 『민중신학자 안병무 평전: 성문 밖에서 예수를 말하다』, 사계절, 2007, 196-200쪽). 고정희가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1975년이므로 ‘교기 절단 사건’은 고정희의 실제 체험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일화를 작품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준엄하게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학문의 자유와 양심을 상징하는

여러분의 교기가 여기 서 있습니다

36년 전에 세워진 이 깃발,

평화스러운 듯 서 있는 이 깃발, 이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중략)

스승의 오른손이 번쩍 들렸다.

그는 교기를 깊숙이 찢었지

아아 36년 동안 온전했던 깃발,

‘임마누엘’(‘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의 뜻)이라 쓰인 히브리 글자가

삼팔선처럼 분절되었다

이 ‘절단된 교기’는 고정희의 시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박정희 정권의 매우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당대의 사회의식과 어떻게 중첩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한국신학대학과 함께 4·19묘지로 상징화되는 민주주의의 열망은 고정희 시세계에서 ‘수유리’가 나타내는 공간적 상징성, 즉 역사의식을 배우고 민주해방을 향한 그의 열망을 강화한 공간으로서의 수유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유리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아래 두 편의 시는 고정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의식이 어떻게 진화 발전, 성숙되어 가는가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고정희가 『現代詩學』을 통해

등단한 시기가 1975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수유리 시절은 자신의 문학적 고양과 기독교 세계관이 함께 융합, 축적되어가던 시기로 자신을 연마하던 시기였다. 김승구는 『실락원기행』에 실린 초기 시 『수유리의 바람』에 나타나는 “수유리”라는 공간은 한국신학대학이 상징하는 “신학도로서의 위치”와 4·19묘지로 상징되는 “역사적 상황이 중첩된 공간”으로 파악한다.⁸⁹⁾ 이러한 고정희의 의식 세계는 이 시의 2연과 3연에서 자신이 놓여진 종교적, 역사적 상황과 흔들리고 있는 실존적 존재감 등이 시청각적으로 한데 어우러져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차 생생한 현실감으로 나타난다.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한 밀천이 흔들리고 두 기둥이 흔들리고
수멀수멀 수멀수멀 네 벽이 흔들리고
수유리가 흔들리고 도봉구가 흔들리고
인수봉이 흔들리고 서울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한반도가 흔들릴 때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덩이가 흔들릴 때

갈갈이 찢기는 우리 실존 그리안고
뉘 모를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
쨍그렁 쨍그렁 요령이 되어
새벽 이슬 마시며 떠나간 사람들
한밤에 가만히 다녀갔구나
가뭇물린 대학 숲에 흥건한 눈물

89) 김승구, 앞의 논문, 255쪽.

“수유리의 바람” 형태로 한밤에 가만히 다녀간 “뉘 모를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 “새벽 이슬 마시며 떠나간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류하며 자신이 위치한 역사적 좌표를 인식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명징한 의식으로 느껴진다. 특히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 “수멀수멀 수멀수멀”, “흔들리고 흔들리고”, “쨍그렁 쨍그렁”과 같이 사회적 울림이 강한 시청각적 표현은 “수유리의 바람”이 사회 역사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시는 고정희의 초기시가 안고 있는 실존적 고통의 정체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잘 드러났지만 역사적 부채의식과 종교적 구도의 욕망, 그리고 현실적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⁰⁾

그러나 『초혼제』에 나타나는 化肉祭別詞 시리즈 중에 다시 등장하는 『化肉祭別詞·8 - 수유리의 바람』은 이 초기 시에서 보다 훨씬 치열하게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반응하는 시인의 의식을 보여준다. 고정희는 이 『초혼제』의 『후기』에서 “화육제별사는 대학 4년 동안 고난주간과 축제기간만 돌아오면 홍역처럼 우리를 따라다녔던 젊은 날의 고민과 갈등과 신념을 그리려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그 시절에서 해방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쓰고 있다.⁹¹⁾ 이 두번째 시에서는 첫번째 시와는 달리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하리”와 같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수유리의 바람’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 친구여

수유리의 바람은 우리들의 순라꾼

수유리의 바람은 우리들의 물음표

수유리의 바람은 우리들의 신경통

수유리의 바람은 우리들의 관절염

90) 김승구, 앞의 논문, 256쪽.

91) 고정희, 『후기』, 『초혼제』, 창작과비평사, 1983, 175쪽.

수유리의 바람은 우리들의 절망가
 아니면 그것은 한반도의 한숨소리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원귀들의 춤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삼각산의 가래끓는 소리거나
 아니면 그것은 죽창깎는 소리이거나
 수유리의 바람소리 듣는 사람들아
 누구도 더 이상의 숙면을 보류한 채
 석탄불 옆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하리

그가 수유리에서 배운 예언자적 비판의 소리는 초기 시에서 보다 구체
 적인 의미를 갖는 ‘수유리의 바람’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고 그것은 또
 순라꾼, 물음표, 신경통, 관절염 등으로 시인의 의식 속에서는 병리학적
 현상으로 나타나 처음에는 “우리들의 절망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곧 그
 것은 한반도의 통시적, 공시적 역사의식과 중첩되어 원귀들의 춤으로, 또
 삼각산의 가래끓는 소리로, 또 동학 역사의 죽창 깎는 소리로까지 융합,
 확대되어 나타난다.⁹²⁾ 그러므로 ‘수유리의 바람소리’는 아직 치유되지 않
 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의 고난을 상징하며 이 바람소리를 듣는 사람들
 은 “더 이상의 숙면을 보류한 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수유리의 바람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석탄불 옆에서 예레
 미야서를 읽어야하리”로 끝맺는 부분은 암흑의 시대를 밝히려던 선지자 예
 레미야처럼⁹³⁾ 이 시대의 불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메시지로 담
 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메시지는 청자/독자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다.

92) 여기서 동학 역사의 죽창깎는 소리 역시 그의 남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비
 롯된 것이다. 강진과 해남 등 전남 각 지역의 향토사는 동학 역사를 중요한 부분
 으로 기록하고 있다.

93)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알고서 통분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
 께 회개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4.2. 서울: ‘민중의 예수’(1981-1985)

고정희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실에서 한국자료를 집필하였다.⁹⁴⁾ 또 1984년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간사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실락원 기행』(1981)과 『이 시대의 아벨』(1983), 그리고 『초혼제』(1983), 이렇게 세 권의 시집을 출판하였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겪고 난 후에 출판된 이 세 권의 시집에서는 초기 시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신학도로서의 부끄러움과 절망, 그리고 자아지향적인 경향은 점차 사라진다. 김문주는 수유리 시절부터 고민해왔던 민중의 현실과 기독교 영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많은 수난의 형상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민중의 수난에 참여하는 예수의 삶’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러므로 “고정희의 역사, 현실 인식과 민중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기독교적 영성위에 정초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당대의 현실 변혁 이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반 위에 건설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⁹⁵⁾ 1980년 광주항쟁 이후 고정희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아벨”로 상징되는 “민중”의 모습과 중첩되어 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나타나는데 『이 시대의 아벨』에 나타난 “아벨”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 시적 화자는 사라진 아벨을 찾던 와중에 불현 듯 화제를 돌려서 아벨의 사라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는 목소리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청자/독자들을 질타한다.

이제 침묵은 용서받지 못한다
 돌들이 일어나 꽃씨를 뿌리고
 바람들이 달려와 성벽을 허물리라
 지진이 솟구쳐 빗장을 뿜으리라

94) 고정희,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평민사, 1985. 7쪽.

95) 김문주, 앞의 논문, 121-122쪽.

바람부는 이 세상 어디서나
아벨의 울음은 잠들지 못하리

이 시가 쓰인 당시가 1980년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광주항쟁에서 희생된 민중들을 상징하는 “아벨의 울음”이 “돌들이 일어나 꽃씨를 뿌리고/ 바람들이 달려와 성벽을 허물리라/ 지진이 솟구쳐 빗장을 뚫으리라”고 예언할 정도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변혁의 힘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목요시> 동인들의 활동 및 고정희 창조적 자아의 발달과정과 연결시켜보면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바람부는 이 세상 어디서나/ 아벨의 울음은 잠들지 못하리” 부분은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발간된 <목요시> 동인지 3, 4, 5권 ‘머리말’에 수록된 동인들의 선언과 일맥상통한다.

1980년대 초반 고정희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변화는 1985년 그가 엮어서 펴낸 『예수와 민중과 사랑 그리고 시』의 머리말 「새롭게 뿌리내리는 기독교 文化를 위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⁹⁶⁾ 고정희는 “여기에 모아진 일련의 시들이 기독교서라고 불리어지기보다는 **참된 삶을 갈구하는 고백의 시**라고 느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⁹⁷⁾ 특히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문학적 위치보다는 한국문학 속에서의 기독교 수용문제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인을 택한 것은 기독교를 알리는 시가 아니라 문학으로 다가오는 기독교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참**

96) 이 글은 후에 단행본 『기독교와 문학』에는 「민중과 시」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되었다(김우규 편저,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1992, 446-454쪽).

97) 고정희, 『새롭게 뿌리내리는 기독교 文化를 위하여』, 고정희 엮음, 『예수와 민중과 사랑 그리고 시』, 기민사, 1985, 10쪽.

된 기독교 문학은 가장 문학다운 작품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전제에 충실한 것이다. (필자 강조, 10쪽)

그러므로 고정희가 이 책에 자신의 어떤 작품을 수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를 판단하는 단초를 밝혀낼 수 있다. 즉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가장 문학다운 문학으로서의 기독교 시를 수록했다는 것인데 고정희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 참된 기독교 문학으로 「이 시대의 아벨」, 「상한 영혼을 위하여」, 「서울 사랑-어둠을 위하여」, 「서울 사랑-두엄을 위하여」, 「야훼님전 상서」, 「그 사람」, 「回生」, 「히브리 傳書」를 선정하였다.⁹⁸⁾

또한 이 책의 서문은 고정희가 1985년 6월 당시 기독교와 민중의 관계를 그의 의식 속에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⁹⁹⁾ 「새롭게 뿌리내리는 기독교 文化를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 쓰인 이 글은 고정희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민중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기독교와 문학을 자신의 내부에서 어떻게 융합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고정희가 파악한 예수의 모습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죄짐을 두 어깨에 무겁게 지고 죽음의 골짜기에 오른 사람”이며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민중의 예수라고 고백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때 자신이 생각하는 “민중”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이란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기 보다는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해야 될 이념체계, 혹은 가치체계를 형성해가는 주체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중”을 신분이나 계급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의 자리, 그의 신념의 방향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로

98) 이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들은 유성호, 김승구, 김문주의 글을 참조하기 바람.

99) 이 책의 서문은 1985년 6월에 쓰였으며 출판된 시기는 1985년 8월이다.

가정해 보았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 이념이 ‘참된 민주적 공동체의 형성’이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기에 자기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개체, 그것이 곧 ‘민중’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중의 힘은 신분에 있지 않고 공동체의 형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9쪽)

위 인용문은 고정희가 평생 주요 화두로 삼았던 “민중”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단락으로 고정희에게 “민중”이란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해야 될 이념체계, 혹은 가치체계를 형성해가는 주체 세력”이며 동시에 “‘참된 민주적 공동체의 형성’에 자기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개체”를 의미한다. 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예수의 핵심은 사랑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실체라면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나눔의 공동체이고 정의와 평등의 공동체이자 자유가 부여된 공동체”라고 ‘참된 민주적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정희에게 “민중”은 기독교 사상에 바탕한 것으로 삶의 한 조건이며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자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 되며 ‘참된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체들이다. 김문주는 고정희의 “민중” 개념이 1970-80년대를 지배했던 변혁 이데올로기의 민중 개념과 매우 상이한 것으로써 고정희 시의 현실성의 의미를 응변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한다.¹⁰⁰⁾ 고정희에게 기독교적 삶의 자세는 “민중의 예수”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시편들 속에서 우리는 민중의 고난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청년 예수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그는 자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

100) 김문주, 앞의 논문, 131쪽: 김문주는 고정희 재학 당시 한국신학대학 교수이며 한국 민중 신학의 이념을 정초한 안병무의 민중 신학 개념이 고정희의 신앙관이 정립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수난을 종교적 영성의 핵심형질로 인식했던 고정희의 시의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133쪽).

하는 영역으로 고백한다.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영역에서 자유를 신봉하고 창조하는 힘, 그것이 곧 그리스도 사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은 절대 고독과 통한다. 왜냐하면 절대 고독에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에도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12쪽)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정희 생가에 마련된 방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세 가지 삶의 모토, “고행, 묵상, 청빈”을 떠올리게 된다.¹⁰¹⁾ 고정희 사후 그의 유품을 정리했던 조용미 시인에 의하면 고정희는 책상에 앉으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지에다 붓으로 “침묵, 고행, 묵상”을 세로로 써서 맞은편에 붙여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방이 셋인 안산의 아파트에서 제일 큰 안방은 서재로 사용했고 중간방은 손님용으로 사용했으며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서랍장 하나와 침대만으로도 꼭 차는 아주 좁은 방”에서 잤다고 한다.¹⁰²⁾ 다시 말하면 고정희가 실천한 그리스도 사랑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영역에서 자유를 신봉하고 창조하는 힘”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창조적 글쓰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의 아벨”을 찾기 위하여 언어로 무장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는 “이 시대의 아벨”과 함께 호흡하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영역에서 자유를 신봉하고 창조하는 힘”을 가진 “민중의 예수” 형상을 띠고 있다. 1985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고정희의 핵심 화두인 “여성”과 “여성주의”는 아직 그의 시세계에서, 또 그의 의식에서 주

101) 지금도 고정희 생가에 마련된 방에 들어가면 이 세가지 삶의 모토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가 표면에 적혀 있는 커다란 도자항아리가 놓여있다. 이 두 가지는 고정희의 삶이 뿌리박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가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체화해갔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유품이다. 조옥라는 고정희의 삶에 대해서 “고행하는 수도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가지 유품 모두 고정희의 그러한 일상적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준다.

102) 조용미, 앞의 글, 140-141쪽: 조용미 시인은 “그것 역시 고행자의 의식이었나, 넓은 방을 비워두고 그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라고 덧붙였다.

목할 만한 핵심주제로 자리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서울: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신문』

5-1. 서울: [또 하나의 문화](1984-1991)

고정희와 동인모임 [또 하나의 문화]와의 만남은 1984년 8월 남이섬에서 개최된 동인지 창간호 편집회의였다. “또문” 1세대¹⁰³⁾ 동인들에 따르면 당시 동인들 중에는 문학 관련 동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동인들 중 누군가의 섭외로 고정희가 그곳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옥라는 『고행의 수도승, 우리 모두의 친구 고정희』라는 글에서 “가냘픈 몸매에 번득이는 눈매의 시인 고정희는 처음 우리 동인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들 속에서 항상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해왔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와 또문과의 첫 모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적고 있다.

“저 시쓰는 고정희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얄전하게 한 후 가만히만 있는 그에게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때가 어제 같이만 여겨진다. 그 편집회의에 참가한 대부분 초기 동인들은 그가 쓴 시를 읽지도 못했으며 그저 막연히 시를 쓰고 편집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그가 원고를 좀 수정해서 책다운 책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만 있었다. ... 그날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평을 좀 해달라고 밀쳐진 원고를 그냥 쓱 보기만 하고 옆에 놓은 채 다른 사람을 관찰만 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킬킬거리면서 고치고 떠들면서 하루 나절을 보냈다. 나는 속으로 “아니 문학하는 사람이 원고나 잘 읽지”

103) 앞으로 이 글에서 동인모임 [또 하나의 문화]를 지칭할 때에는 이와 같이 “또문”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또문 1세대”란 고정희와 같은 세대로 창립 동인으로 활약한 동인들을 의미한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멀건히 앉아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남이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이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사진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 후 한 참이나 지난 다음에야 그는 그 모임에서 우리들을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편하게 설 수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와의 만남은 여러 모임을 통하여 지속되어 왔다. (245쪽)

그러나 고정희 자신이 처음에 그 팀에 들어간 것은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는데 “뜻밖에도” 고향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신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마음을 쏟아 붓게 되었으며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등을 전공한 동인들과 더불어 새로운 대안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데 의기투합하여 동인지를 만드는데 그 때까지 쌓아왔던 출판인으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렇게 공동의 작업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모아둔 여성문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사 새로 쓰기” 작업을 구체화하는 것도 이 만남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는 또문의 가장 좋은 점으로 서로 다르되 함께 하는 분위기를 꼽았는데 한국의 어느 모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가능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¹⁰⁴⁾

그러나 이 첫 만남 이후 고정희가 내면의식 세계에서 또문과 만나가는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또문 1세대 동인들에 의하면 그의 이념적 고민은 여러 해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환경을 익히려 노력했고 때로는 스스로 갖고 있던 또문에 대한 상에 비추어보고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마를 애써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앞에서 고정희 자신이 언급한 또문 내의 독특한 토론문화, 즉 함께 토론하고 즐겁게 일하는 친구들이 좋아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접근이 무조건적은 아니

104) 박혜란, 앞의 글, 69-70쪽.

있고 어디까지나 그 자신이 설득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을 때 그랬다. 동의할 수 없는 문제에서 그는 완강하게 친구들을 비판했고 격돌했고, 또 때로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인들도 그러하듯이 “독립”했다.”¹⁰⁵⁾ 고정희가 1985년 1월 9일 보낸 편지는 그가 또문과 한 걸음씩 만나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저는 어제밤 있었던 형과의 대화 이후
 오랫동안 잠을 설쳤고 오늘은 극도의 우울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주 멋모르고 설쳤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또 하나의 문화 운동에 대해서 일종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공동체에는 원칙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이념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형과의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냉정히 따지면서
 제가 오히려 제 식으로 또 하나의 문화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
 저를 크게 나무라지 마세요.
 또 하나의 문화 편집방향에 대해
 감을 잡는데 한 달이 걸렸듯이
 모임 체제에 대해 감을 잡는 데는 반년 이상이 걸린
 이 아둔함이 딱히 병일 수는 없겠기에 말입니다. (『너의 침묵』, 62-63쪽)

여기서 고정희가 언급한 “모임 체제”는 대부분의 신입 동인들이 경험하는 바이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의 조직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구

105) 조형 외, 앞의 책, 60쪽.

성되는 소모임 중심의 유연한 공동체 성격을 띠는 또문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원칙과 이념이 미리 정해져 운영되는 1980년대 대부분의 사회운동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고정희 역시 다른 동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또문의 특징을 익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또문과의 만남이 약 1년여가 다 되었을 즈음, 1985년 6월 23일 보낸 편지에 의하면 고정희가 “여성”이라는 화두를 자신의 인식 체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제3세계의 시각과 지식인의 시각이
 ‘새로운 세계관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민중’론이
 ‘여성운동’과 어떻게 동일시 될 수 있느냐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민중론을 주도해온 사람들의
 아이디어 속에 과연 얼마만큼 여성해방론이 습합되어
 있느냐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민중의 실체가
 세계관의 문제이나, 신분의 문제이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 문제를 신학화하는 모든 노작을
 통틀어 해방신학이라 칭하고 여성신학을
 해방신학에 포함시키는 사조를 따른다면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은 ‘인간화’의 차원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봅니다. (『너의 침묵』, 41-42쪽)

이 글을 통해 분명한 것은 그가 민중운동, 여성신학을 내포하는 해방신학, 그리고 여성 운동을 하나의 틀 안에 넣고 싶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의 질문에 이르면 끊임없이 그 속에 자신을 함몰시켜가며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때까지 애를 태우며 읽고 정리하고 연결하고 현실에 이론을 대입해 보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그의 특성상 그로부터 1

주일 뒤에 다시 보낸 편지에서는 “제3세계-식민지 경험과 서구 자본주의 지배-왜곡된 사회, 정치, 경제 구조-민중의 압제 상황-민중운동의 당위”에 대해 자기 나름의 체계적이고 일반론적인 정리를 해내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일반론을 한국 상황에 대입시키면서 여성문제를 분단 현실과 연결시키고 여성운동의 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¹⁰⁶⁾ 여기서 이 두 글을 쓴 시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문 동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1985년 6월 즈음, 고정희는 자신만의 “민중” 개념을 『예수와 민중과 사랑과 詩』의 서문에서 피력하였다. 그리고 곧 기독교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민중운동”과 또문 동인들이 지향하는 “여성운동”이 어떻게 “인간화”의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따라서 1985년 6월 이 시점부터 고정희에게 “여성”과 “민중” 개념이 공통적인 화두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또문 여성주의 이념공동체’는 1984년 이후 그의 인식세계와 시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정희는 일단 또문 동인모임에 익숙해지자 “누구보다도 예리한 의견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아프게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또문 동인들과 고정희의 만남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제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념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조옥라는 또문 내에서 고정희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작업-즉 좀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을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하려는 것-이 간과하기 쉬운, 아픈 현실에 대하여 절절한 인식이나 비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왔다. 고정희가 안고 있는 현실 인식은 우리 사회의 억압적 정치, 독재, 오월 항쟁, 노동 투쟁들에 바탕을 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동인들과 격렬하게 부딪치기도 했다. 그래서 **고발의 차원에서 대안으로 뛰고 싶**

106) 조형 외, 앞의 책, 42-45쪽.

은 동인들에게 항상 한국현실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없이 그렇게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느냐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필자 강조, 『고행의 수도승』, 246쪽)

위 글은 또문 동인들 내에서 고정희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하나의 문화 친구들에게 바치는 정성은 지나칠 정도”였다. 그 과정을 통해 또문의 편집동인들 역시 고정희를 통하여 “정말 우리 사회 밑바닥에 가라앉아있는 정서들의 아름다움과 힘”을 배워가기 시작했다.¹⁰⁷⁾ 이러한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해 고정희는 ‘또문 여성주의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추구하던 ‘참된 민주적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정희는 또문 동인들을 만나면서 한국문학을 여성의 관점에서 정리해내는 작업을 글쓰기와 몸으로 직접 수행하였다.¹⁰⁸⁾ 그 결과 1986년 발행된 동인지 2호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에 『한국여성문학의 흐름: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는데 이 글은 그동안 자신이 읽어온 내용을 한데 모아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사 “다시쓰기”(re-writing)를 시도한 글이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정희가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읽어왔으며 그 내용들을 모두 모아 나름대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이 논문은 “한국문학에서 여성문학비평의 출발점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¹⁰⁹⁾ 한국 여성문학사 기록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해방 이후 여성 문인들이 안착해온 ‘여류성’을 청산해보려

107) 조옥라, 『발문: 고정희와의 만남』, 고정희 지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 비평사, 1992, 194쪽.

108) 여기서 “몸으로 직접 수행하였다”라는 표현은 고정희가 1987년 또문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 발간을 기획한 점과 1988년 “여성해방시화전”을 기획 및 진행한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그에게 당시 한국 여성문학의 좌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09) 김양선, 앞의 논문, 41쪽.

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다”는 평가도 받았다.¹¹⁰⁾ 이 글을 쓴 이후 고정희는 곧 한국 여성문학이 성취한 당시의 좌표를 탐색하는 기획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또문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 기획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¹¹¹⁾

고정희는 1986년 말부터 1987년 내내 『여성해방의 문학』의 기획 및 편집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며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수많은 여성문인들과 접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여성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확인해 나가는 동시에 당시 여성문학의 현주소를 몸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¹¹²⁾ 이 책은 “신문학 70년 사상 최초로 시도된 기획작품집”이다.¹¹³⁾ 이 책의 ‘편집의 말’에서 고정희는 1987년 당시 한국 여성해방문학의 수준은 “여성이 사회에서 직간접으로 당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현실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냐의 고발수준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해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에너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여성작가들 자신의 문

110) 조옥라, 조혜정, 『제3부 여성해방문학론: 편집의 글』,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138쪽.

111) 조혜정은 이 책을 발간할 때 “일 년에 걸쳐 편집이 끝난 뒤 우리는 제목 때문에 또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고 말하면서 이 제목이 확정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민중 운동권에서 자란 시인이었고 그런 만큼 민중 운동권에 친구가 많았다. 그 친구와 후배 남자들이 자기들을 소외시키는 ‘여성해방’이라는 단어 대신 ‘인간 해방’이라는 단어를 써 줄 것을 강력히 권한 모양이었고 그래서 방향을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분리주의’를 택했다. 그는 사실상 기존의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을 결합시키고자 노력한 운동가 중 하나였다.”(조혜정, 『시인 고정희를 보내며.....』,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232쪽)

112) 또문 동인지의 편집 방식은 필자가 제출한 원고들을 동인들이 편집 방향에 따라 돌려 읽으면서 수정의견들을 제시한 후 다시 수정본 원고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여성문인들에게는 매우 생경하고 낯선 방식의 편집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또문 동인들과 여성문인들 사이에서 고정희가 난처하고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전해진다.

113) [또 하나의 문화], 『여성해방의 문학』, 동인지 제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87, 13쪽.

제를 넘어서서 인권운동을 인식하는 한국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⁴⁾ 1987년 2월 이 책이 지향하는 바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좌담¹¹⁵⁾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에서 고정희가 말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가 이 동인지 편집 과정을 통하여 창작 심리와 여성운동, 여성문학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고정희는 이 동인지 발간 과정에서 파악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창작 심리가 페미니즘이라는 의도적인 틀이 주어지니까 위축되고 페미니즘에 충실하려니까 안 써진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성문학이 무엇을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단계이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만 여성문학인기를 고심하는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의 페미니즘 문학의 단계는 **왜 나의 문학이 페미니즘 문학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자 강조, 16쪽)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희가 1990년 2월 『문학사상』에 발표한 논문 『여성주의 문학 어디까지 왔는가?: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시기부터였으며 이 때 이미 고정희는 ‘소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여성문학의 정의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정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고발

114) 앞의 책, 13쪽.

115) 또한 동인지를 발간할 때 좌담은 모든 편집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을 때 개최되는데 이 좌담에서는 편집과정에 참여한 동인들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과 당시 사회 내에서 그 주제의 좌표를 읽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책의 경우에는 “여성문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자들이나 편집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들을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여성문학의 전망과 연결시켜 나간” 좌담으로 이 책의 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고정희와 함께 박완서 작가가 참여하여 당시 여성문학의 좌표와 역할을 짚어내고 있다(14쪽).

의 차원에서 대안으로 뛰고 싶은” 또한 동인모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고정희는 훌륭한 페미니즘 문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다. 박완서 작가가 “나는 한 번도 내가 페미니즘 문학을 해야지라고 의식해 본 적이 없다”는 점과 “페미니즘 문학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좋은 문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느냐”고 덧붙이면서 “내 생각에 진짜로 좋은 문학이라면 그 자체로서 페미니즘 문학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요”라고 말하자 고정희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또렷하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훌륭한 문학 속에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페미니즘 문학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훌륭한 문학 작품에서 그쳐 버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문학적 수업과 페미니즘 의식을 길러가는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말뚝」 같은 작품은 커다란 충격을 주는 작품이었고 문학적으로도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엄마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역사가 주는 상처를 그리고 있는데**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어머니 자신이 좀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과 그랬다면 끝마무리가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자 강조, 22쪽)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여성문학계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두 작가가 페미니즘 문학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 1987년 당시 어떻게 달랐는가를 알 수 있다. 위 좌담을 통해 고정희 자신이 페미니즘 문학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문학적 수업과 페미니즘 의식을 동시에 길러가는 것”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의식변화는 1984년 이후 또문과 깊이 만나가던 그의 행보와 자전적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좌담에서는 페미니즘 문학을 위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역사와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해석 하는 방법으로 고정희가 무엇을, 또 어떠한 문학적 형상화를 중시하고 있었는가가 그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재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빚어진 여성의 문제를 단순한 남성 여성간의 사적인 대비로 보지 않고 **우리 전체가 역사적 맥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죠. 여성해방문학에서 여성을 포착할 때 그것은 한 여성의 고통이면서 모든 여성의 고통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죠.**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것조차 이렇게 역으로 보는 데서 재해석이 시작되어야 하겠죠. (필자 강조, 24쪽)

그러므로 고정희는 자신이 생각한 여성문학의 출발점을 가부장제가 시작된 이후 역사적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꼽고 있다.¹¹⁶⁾ 그 과정에서 대립요소로 생각되어왔던 “창작”과 “운동”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를 휩쓴 여성운동이 왜 문학과 같은 창작 분야에 그 영향력이 미흡했는가를 논의할 때 고정희는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창작”과 “운동”의 대립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였던 “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삶을 지향한다면 운동이라는 것에 무조건

116) 이와 같은 고정희의 관점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글은 1990년 2월 『문학사상』에 발표한 그의 두 번째 논문 「여성주의 문학 어디까지 왔는가?: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이다. 이 글은 고정희 사후 출판된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1993)에 재수록 되었다.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텐데 창작은 새로워야하고 운동은 주어진 틀에 맞추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서 갈등을 일으켜왔어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해요. **삶이 곧 운동이다, 운동은 결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다면 여성문학의 지평이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필자 강조, 25쪽)

그리고 고정희는 여성문학인들이 “창작”과 “운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문학인들 사이에서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학인들만의 모임에서 더 나아가 같은 뜻을 가진 여성 집단과 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28)라고 자신의 의견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피력한다. 또한 이 책의 주요 편집인으로서 이 책의 기획부터 진행, 그리고 결과를 내놓기까지의 과정과 이 책 발간작업의 의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처음부터 상당히 조심스러운 출발이었어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리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기여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3호 작품을 모으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페미니즘 시각이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지만 그래도 출판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은 불완전한 수준에서라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여성문학을 정리해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9쪽)

고정희의 표현대로 “신문학 70년 사상 최초로 시도된 이 기획작품집”을 진행하는 과정은 고정희에게 한국어여성문학의 현 좌표와 그와 관련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고정희가 이 책의 발간을 진행한 과정을 지켜본 조옥라, 조혜정은 이 작업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그는 조용히 혼자 글쓰는 문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문인들

을 끌어 모으는 기획가로 변신을 해야 했으며 고정희가 매우 적극적으로 문인들을 끌어 모으고 그들에게 여성해방을 담은 글을 써내라고 ‘설득’과 ‘강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와중에서 그는 글쓰는 좁은 틀 안에 안주하려는 여성 문인들의 성향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편집의 글』, 138쪽)

그렇지만 이토록 어렵게 이 책의 발간을 진행했던 경험은 1990년 고정희가 한국 여성문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논문 『여성주의 문학 어디까지 왔는가?: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를 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자신도 이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학동택』이라는 소설을 “하빈”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하였다. 고정희가 쓴 유일한 소설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옥라, 조혜정은 “작품이 없다고 염려를 하던 중에 그가 써온 소설”이며 “소설이 없어서 메꾸어낼 책임감에서 썼는지, 정말 쓰고 싶어서 썼는지는 아직 잘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이 소설을 던지면서 그가 무척 쑥스러워하던 기억이 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죽기 전 그는 앞으로 소설을 쓰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라고 덧붙였다.¹¹⁷⁾

현재 한국문학사에서 고정희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여성문학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해방의 문학』 『좌담』에 나타난 고정희의 발언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료와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인 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고정희는 자신의 문학창작 분야에서 이러한 여성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여성문학을 창조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며 특히 여성문인들의 소그룹 활동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117) 조옥라, 조혜정, 앞의 글, 138쪽: 동생 고성자 씨에 의하면 고정희는 어린 시절 동네 이웃에서 보고 자란 학동택의 삶을 소재로 하여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이때 시와 소설 장르의 차이점을 창작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보였다. 그리하여 1988년 고정희가 중심이 된 또문 문학인 소집단과 여성 해방주의적 미술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진숙, 윤석남, 김인순, 박영숙, 정정엽 등 미술팀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여 1988년 “여성해방시화전”을 개최하였다. 그 후 이 시화전에 전시되었던 시들을 중심으로 『여성해방시모음: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내일을 여는 문학” 시리즈 1권으로 출판되었는데¹¹⁸⁾ 『책을 펴내며』에는 “여성해방”이란 용어가 문학적 생명력을 획득해간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문단에서 ‘여성해방’이란 단어는 생소하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폭넓은 감수성을 조화시켜 강하고 활기차며, 또 가슴깊이 아름다운 여성해방의 시를 쓰는 시인들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참으로 자랑스럽게 그들의 시를 한데 묶어 첫 시집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5쪽)

1988년 11월 당시 고정희는 여성시인들이 모여 이 시집을 발간한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여성시인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서도 그에게는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 시모음집에는 총 75편의 시가 수록되었는데 대부분의 시들이 『여성해방의 문학』(1987, 또문 동인지 3호), 『여성운동과 문학』(1988, 민족작가회의 여성분과), 그리고 『지배문화, 남성문화』(1988, 또문 동인지 4호)에 게재되었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실린 시들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침묵과 복종이 강요되어왔던 여성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어 쓰여진 것들”이며 “시인 개인이 여성해방운동에 동참하면서 해방을

118) 이 책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가 1987년 12월 29일 출판사로 등록한 이듬해인 1988년 11월 11일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1년 뒤인 1989년 11월 20일 재판이 발간되었으므로 시집으로서는 나름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 후 “내일을 여는 문학” 시리즈 2권의 출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당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참여시”라고 밝히고 있다.¹¹⁹⁾ 특히 12명의 시인이 쓴 75편의 시를 한데 모은 이 시집은 “여성해방”이라는 단어가 낯선 시기에 “여성해방의 시”라는 이름을 달고 출간된 첫 시집이자 그 시집에 실린 시가 수준작들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고정희가 기획한 이 책에서는 모성과 자매애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성과 자매애의 회복은 그 자체가 여성해방운동이 단기적 목표이자 남녀 모두를 위한 보다 인간적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장기적 방법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75편의 시 전편에 흐르는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 할머니의, 내 어머니의, 내 자매와 나 자신의, 그리고 우리 딸들의 울음과 웃음, 피와 땀, 한숨과 탄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는 큰 강으로 흐르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염원일 것이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¹²⁰⁾ 이 글 역시 고정희가 쓴 것으로 여성문학의 창작 과정 자체를 “따로 또 같이” 진행하고자 했던 고정희의 소박하면서도 야심찬 염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고정희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는 문학 예술인들과의 공동 작업을 체험하면서 더욱 확장, 확대되어 갔고 이는 그의 시작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그즈음 『동행』, 『따뜻한 동행』과 같은 시들 뿐만 아니라 붓물, 물, 강 등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시들을 많이 발표하였다.¹²¹⁾

119) 『여성해방 시모음: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88, 5쪽: “여성해방 시모음”이라고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에서는 여성억압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시들로, “2부 영원할 듯 보였던 빙하기는 끝나”는 억압적 상황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된 삶”의 모습이 개인의 그리고 집단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룬 시들로, “3부 우리 깊고 아득한 강을 이루자”는 억압적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새로운 만남으로, 그리고 새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왜곡된 의식세계를 벗어나 되찾아야 할 무의식의 세계를 더듬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120) 앞의 책, 5쪽: 고정희가 이 책에 수록된 마지막 작품으로 자신의 시 『우리들의 두 눈에서 시작된 영산강이』를 수록한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121) 80년대 후반에 쓰여진 고정희의 시들 중 ‘자매애’와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상징

고정희가 1990년 2월 『문학사상』에 발표한 두 번째 논문 「여성주의 문학 어디까지 왔는가?: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는 그가 “민중운동과 여성운동 현장을 일일이 뛰어나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 쓴 것”으로 “여성운동이 당시 강하게 일고 있던 민중 운동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여성주의”라는 이념체계가 맑스주의나 민족주의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²²⁾ 고정희는 이 글에서 여성문학은 그 창작 과정에 따라 고발 문학의 단계, 비판적 재해석의 단계, 참다운 비전을 제시한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전개될 수 있는데¹²³⁾ 이 세 단계가 한 작품 속에서 형상화될 수 있을 때 참다운 남녀 해방의 비전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양선은 이렇게 고정희가 세 단계의 문학을 동시에 지향했던 이유로 “민중성과 ‘자매애’, ‘모성성’을 포괄하는 여성문화적 비전 양자 중 어느 것에 선차성을 둘 것인가에 대한 80년대 여성문학 논쟁을 두고 고심했던 고정희의 독자적인 해결방식”이라고 결론짓고 있다.¹²⁴⁾ 고정희는 이 글의 끝 부분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해방 문학”의 지향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남녀 해방된 세계관을 지향하는 실천문학으로써 여성 해방문학은 지배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여타의 권위주의적 논리와 이념 규정, 언어, 방법론을 일시에 버릴 것을 요청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문학론이나 리얼리즘 문학론에 쉽게 편승시키는 가치체계의 변혁, 시각의 변혁, 언어의 변혁을 피하지 않고 ‘여성주의 시각’에 편승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제 창작 과정에서 치열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은 ‘과연 해방된 세계관을

하는 물, 강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시들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소희,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과 고정희 비교연구 - 사회비평으로서의 페미니스트 시쓰기』를 참조하기 바람.

122) 조옥라, 조혜정, 앞의 글, 138쪽.

123) 여성문학의 단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작업은 이미 1987년 발간한 토론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 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124) 김양선, 앞의 논문, 40쪽.

담은 문학 양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인간성의 출현과 체험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05쪽)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해방론에 힘입어 실제 그가 창조적/시적 실천의 영역에서 주력했던 것은 고발문학의 단계를 넘어선 비판적 재해석, 참다운 비전의 단계였으며 이 점이 바로 고정희의 시를 80년대의 다른 여성문학 작품들과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¹²⁵⁾ 이와 같이 고정희가 당시 여성문학 담론과 거리를 두는 차별성과 특이성을 보인 것은 가부장적 일상생활에서 대안문화를 찾으려는 또문 동인모임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정희가 도달한 여성문학론에 끼친 또문 동인모임의 영향력을 읽어낼 수 있다.¹²⁶⁾

5-2. 서울: 『여성신문』(1988-1989)

고정희는 1988년 여름 45일간 유럽을 여행했는데¹²⁷⁾ 그 때가 바로 『여성신문』 창간 바로 직전이었으며 고정희 자신은 이 유럽 여행을 『여성신문』 주간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생각했다. 『여성신문』은 여성주의에 입각하여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는 정론지의 성격을 표방하

125) 고정희는 자신이 추구했던 “해방된 세계관을 담은 문학양식”의 예로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문체혁명”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작품으로는 육십대, 오십대, 사십대의 성 노동자 세 명이 질펀하게 굶판을 벌이면서 가부장적인 세대를 꼬집는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을 들 수 있다.

126) 가부장적 일상생활에서 대안문화를 찾고 확산하려는 또문 동인들의 노력은 20여년간 지속된 동인지 발간 작업으로 결실을 맺어왔다. 여성문학 주제 관련 동인지로는 3호 『여성해방의 문학』(1987)과 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1992)를 꼽을 수 있다.

127) 고정희는 이 유럽 여행에 대하여 “내 일생에 처음인 ‘45일간의 유럽 여행’”에서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구상을 끝냈으며 이 시편 속에는 “유럽 여행을 전적으로 주선해 준 친구 조혜정의 큰 우정이 스며 있다”고 썼다(『후기』,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 비평사, 1989, 156쪽).

면서 1988년 12월에 창간된 주간지이다. 그 당시 고정희에게 『여성신문』은 당연히 여성운동의 매개체이자 현장이었다. 약 17주간 지속된 『여성신문』 주간으로서의 글쓰기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고정희가 갖고 있던 여성주의 인식과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형은 “그는 여성문제를 여성 전체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 민중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여성운동의 주체이고 여성운동이 해결하려는 여성문제는 민중의 반이면서 특수한 민중인 여성들, 특히 여성 농민, 여성 노동자, 주부들의 문제로 본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화는 단순히 민중의 일부로서 남녀를 구분하기를 꺼리던 그 몇 해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¹²⁸⁾ 또한 동인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한 그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는 이제 시 창작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사회정치적으로 여성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그는 『여성신문』을 이들(여성 민중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매체로 여겼다. 비록 독자의 층은 다양하겠지만 농민 여성, 여성 노동자, 주부의 문제를 중시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이고 사적이라고 생각할 문제들을 공적인 지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정치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지향했다. 그러므로 초창기 『여성신문』의 기사는 그 자체로서 여성학의 교과서가 될 만큼 여성 문제의 수많은 이슈들을 사회적, 법적, 문화적, 정치적 접근법으로 다루었다. 고정희가 이 『여성신문』에서 일한 창립 초기는 『여성신문』이 여성주의 정론지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시기였다. 실제로 고정희는 이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삶과 뼈를 발리는 노동”에 시달리는 동시에 “여성 억압의 다양한 현상들과 부딪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¹²⁹⁾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당시 여성주의 이상으로 생각했던 자매애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어지고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그에게는 매우 엄중한 현실 체

128) 조형, 『제1부 편지글을 통해본 고정희의 삶과 문학』,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68쪽.

129) 박혜란, 앞의 글, 78쪽.

힘이었다.¹³⁰⁾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1990년에 출판한 『여성해방출사표』 제3부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성해방출사표』 제3부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어떻게 규제해왔으며 그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갈라져왔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야기 여성사·6”이라고 부제가 붙은 시 「여자가 하나되는 세상을 위하여」 부분에 속한 두 편의 시 「어느 정실부인과 독신녀 이야기」와 「무엇이 그대와 나를 갈라놓았는가」를 살펴보면 그가 이러한 점을 얼마나 민감하게 읽어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무엇이 그대와 나를 갈라놓았는가」에서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때로 나는 내 자신 속에서
그대와 나를 갈라놓은 내 적을 발견합니다

너는 검은 색이고 나는 흰색이야

당신을 향하여 금을 긋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적을 봅니다.

시 한편 없이도 살만 찌는 주제에
하하 인생의 깊이와 넓이?

당신을 향하여 거드름을 떠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적을 봅니다.

(중략)

130) 고정희 자신은 이 시기를 “여성신문 창간 작업에서부터 1년에 이르는 그 이수라장(?) 속”이라고 표현했다(『후기』,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156쪽).

그러나 때로 나는 당신 속에서
 그대와 나를 갈라놓은 당신의 적을 만납니다
 당신과 다정하게 마주 앉지만
 내 품 속에서 슬몃 얼음이 만져질 때
 해를 거듭하며 만나고 또 만나도
 당신에 대하여 아는 게 없을 때
 아무리 코를 킁킁거리려도 들뜬 냄새가 안 날 때
 나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적을 만납니다

박혜란은 이 시가 “고정희가 여자로 살면서,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들을 만나면서 외로움이 줄지 않던 것, 그리고 독신녀라는 신분으로 겪어야했던 억압과 고통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시”라고 평가하면서 “여성이 하나되기를 열렬히 원했기에 그는 더욱 외로웠던 것”이라고 읽어낸다.¹³¹⁾ 동생인 고성자 씨 역시 “언니가 예전에는 매우 친했지만 결혼으로 인해 삶의 반경이 달라지면서 그 친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쉬워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독신녀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고정희 세대에서 ‘독신녀’인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매일 맞닥뜨리는 삶의 다양한 순간순간 그가 어떻게 느꼈을까는 그의 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정실부인과 독신녀 이야기』의 마지막 3개 연에는 고정희가 독신녀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우스꽝스럽지만 서글프게 표현한 이런 구절들도 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러
 울까 웃을까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독신녀가 말을 받았습니다

131) 박혜란, 앞의 글, 89쪽.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독신녀를 들볶지만 마시고
그토록 불쌍한(?) 독신녀를 위해서
쥐구멍에 별들 날 좀 마련해 주시지요

아 물론 있지요
내 남편하고 가끔 그대 걱정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되고 하다가
내 남편 왈
“정 안되면 내가 다 데리고 살게” 하더라구요(하하)
(누가 살아준대요?)

이렇게 일장연설은 끝났습니다
독신녀에 대한 성토대회(?)가 끝난 후
참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서로 손을 흔들며 뒤돌아서
제각기 바쁜 길을 재촉했지만
우리가 헤어진 등 뒤에
뭔가 슬픈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평행선을 질주하는 두 목마름처럼
자꾸만 목젓에 뜨거운 기운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험들, 특히 ‘정실부인’과 ‘독신녀’로 여자를 구분하는 가부장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자의식은 이 시에서 “목젓에 뜨거운 기운”과 함께 자괴감으로까지 읽힌다. 그러나 뒤이은 두 번째 시 『무엇이 그대와 나를 갈라놓았는가』의 끝 부분은 이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읽힌다.

아아 그러나 때때로

나는 당신 속에서 동지를 만납니다

좌절의 밧고랑에 토악질하는 등 두드리는 손끝에서

나는 동지의 순정을 만납니다

아금아금 시시하고 데데해진 사람끼리

어둔 밤길 동행하는 든든함 속에서

나는 동지의 따뜻함을 만납니다

슬픔의 한 자락 붙드는 모습에서

간간이 주눅드는 인간 냄새에서 두 눈에 가득 고이는 상처에서

나는 동지의 그리움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그는 결혼 여부로 여자들을 이분화, 적대화하는 가부장제 문화의 논리를 꿰뚫어 보면서, 여성들이 각자 선 자리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연대적 과정을 한편의 연극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성들끼리 상대방에게서 “동지의 순정을, 따뜻함을, 그리움을” 발견하는 감각을 일깨우자고 역설한다.¹³²⁾ 그러므로 『여성신문』에서의 경험이 고정희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 발전과정에 준 주요 영향으로는 그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자매애’와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몸소 체험한 것이다.

132) 삶의 무거운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고정희의 특징이다. 김경희는 고정희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간직한 사심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언젠가 나는, 그가 무언가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는 아주 오랫동안(2시간 이상을) 소리죽여 오열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픔의 한편, 어떤 경악에 차라리 침묵을 지켜줄 뿐이었다. 마침내, 통통 부은 눈을 하고 고개를 든 그녀의 쓸쓸한 얼굴엔 순간, 어이없게도 어린애 같은 미소가 순연히 펼쳐지질 않는가... 어느 누구와도 아무리 심하게 시비를 논하고 다투었다 해도 그 때뿐 늘 뒤끝이 없고 차후에 다시 대하면 여전히 심성 속에서 반겨하고, 사람을 믿는 데에 인색할 줄 몰랐다”(138쪽).

6. 결론: “어머니 하느님”

고정희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어온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은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매우 혁신적인 상징 기호에서 닳을 내렸다. 이 이미지는 그녀의 삶을 관통해온 세가지 주제, 기독교, 광주, 여성이 모두 응축되어 나타난 상징 기호이며 고정희가 한국 문학사에서 새롭게 개척한 시적 영토이다. 김문주는 고정희 시에 나타나는 “어머니 하느님”이 한국 시문학사에서 갖는 독보적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고정희의 시가 도달한 ‘어머니-하느님’은 종전의 신학적 관념을 전복하는 매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써 신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 현실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하는 매우 진보적인 이념이었다. 고난의 현실을 새로운 구원의 지평으로 사유하고자 했던 고정희의 종교적 영성은 한국시사에서 매우 드문 형이상학적 영토였으며 그녀의 작품세계를 다른 현실주의 시들과 변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질이다. (122쪽)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고정희의 시를 “한국기독교문학, 나아가 한국문학의 매우 예외적인 지점”으로 평가하고 있다.¹³³⁾ 그러나 나는 고정희의 시세계가 도달한 마지막 지점, “어머니 하느님”은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한 종교적 영성뿐만 아니라 1980년 광주항쟁의 구체적인 역사와 여성주의 이념공동체인 또문 동인으로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토록 혁신적인 상징 기호의 창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시세계에 “어머니 하느님”이 울부짖으며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래의 시, 『광주의 눈물비』 시집의 「제2부 눈물의 주먹밥」에 나오는 「통곡의 행진」에 “암하레츠 시편 7” 이라고 부제가 붙은 시 전편을 살펴보자.

133) 김문주, 앞의 논문, 124-125쪽.

광목 집배 한 자락으로

그대들 최후의 비명을 덮으며

번개치는 그대들 두 눈을 감기며

광주의 어머니들이 울부짖었다

피묻은 맨발에 양말을 신기고

이름없는 원혼들의 수의를 입히며

광주의 자매들이 울부짖었다

모른다 귀를 막고

모른다 눈을 감고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입을 다문

저 최악의 대낮에

피에타 피에타 피에타

얼굴없는 시신을 가슴에 파묻으며

광주의 누이들이 울부짖었다

어머니 하느님이 울부짖었다. (필자 강조)

『광주의 눈물비』 시집의 「제2부 눈물의 주먹밥」에 실린 19편은 모두 부제로 ‘암하레츠 시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남은 자의 비밀-암하레츠 시편 1」에서부터 「버림받은 지구, 그 이후-암하레츠 시편 19」까지 모두 광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희는 앞에서 언급한 1985년 1월 9일 또문 동인에게 보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토로한 편지와 1985년 8월 『예수와 민중과 사랑과 詩』 서문을 쓴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암하레츠 시편’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10월 또문 동인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암하레츠 시편’의 작품 구상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 글은 그의 창작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울겨울에는 본격적으로 神의 現存 문제를
작품에 대두시키는 장시를 쓰고 싶은데,
저는 이 장시에 히브리 신앙 전승 속의
‘암 하아레츠’(people at large, people of the earth) 사상을
테마로 다뤄보고 싶어요.
신학대학 강의실에서 기억해왔던
암 하아레츠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수난과 분열,
인간의 유한적 운명론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백성’이란
종교적 무식자들을 일컫는 (천민, 노비)
욕설이었던 반면
광의의 의미로서는
인간은 누구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계 안에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저의 알레고리적 해석으로는
 구약의 구원사적 메시지는
 당시 특권 계급 하베림보다는
 암 하아레츠에 겨냥되어 있다고 보며
 신약을 통해 시작된 예수의 메시지는
 시민보다는 민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메시지는
 징벌보다는 구원에 핵심이 들어 있으며
 우주적 구원관에서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후략)

1985년 10월 13일 (『너의 침묵』, 46-47쪽)

이와 같이 『광주의 눈물비』 시집의 「제2부 눈물의 주먹밥」에 등장하는 ‘암 하레츠 시편’은 1985년 여름, 그의 ‘민중’ 개념이 성립된 바탕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편지에서 고정희는 “신학대학 강의실에서 기억해왔던 암 하아레츠”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안병무의 글 『예수와 민중: 마가복음을 중심으로』에 이에 대한 해석이 등장한다. 예수 시대의 “암 하아레츠(am ha'aretz)”란 체제에서 멸시받고 밀려났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을 의미하며 예수 이후 마가 시대에 있어서 “암 하아레츠”는 사회계층적 개념으로 멸시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¹³⁴⁾

134) 안병무, 『예수와 민중: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김진호, 김영석 편저, 『21세기 민중 신학: 세계신학자들, 안병무를 말한다』, 도서출판 삼인, 2013, 112-113쪽: 이 용어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나 예수 시대의 ‘암 하아레츠(am ha'aretz)’란 종교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배우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반율법적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시기 랍비적 유대교가 형성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며 이 때 랍비 유대교란 바로 율법의 체제화된 사회를 말한다. 랍비의 유대교는 암하레츠

그렇다면 고정희가 ‘암하레츠 시편’을 처음으로 구상했던 1985년 당시 ‘암하레츠’¹³⁵⁾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사회 계층을 염두에 두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으나 5년 후인 1990년 발표한 시에 등장한 구체적 이미지로는 “광주의 어머니들”, “광주의 자매들”, “광주의 누이들”이다. 위 시에 표현된 것처럼 “피묻은 맨발에 양말을 신기고 / 이름없는 원혼들의 수의를 입히며” 울부짖은 “광주의 자매들”과 “얼굴 없는 시신을 가슴에 파묻으며” 울부짖은 “광주의 누이들”은 결국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역사의 비극적인 현장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광주의 여성들이다. 이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반응으로 드디어 마지막 행에서는 “어머니 하느님이 울부짖었다.” 이 시 속에서 “어머니 하느님”이 등장하는 장면의 구체적인 역사 현장을 잠시 들여다보자.

여고생들은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사망자 명단을 작성하고 신원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방송하는 일을 전담하였고 또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은 취사와 여러 가지 사무적인 잡무들을 기민하게 도왔다. 신원이 확인된 시체만 관에 입관시켜 분수대 앞으로 운반했다. 관이 도착할 때 마다 어머니의 눈물과 통곡이 산천을 떨게 했다.¹³⁶⁾

도청 앞 맞은 편 상무관에는 신원이 확인된 시체들이 질서정연하게 태극기와 무명천에 덮여 진열되었고 입구에 분향대가 마련되었는데 주로 황금동 술집 접대부로 알려진 여성들이 자진해서 이들 참혹하게 죽은 시체들을 씻기고 염하는 일을 도왔으며 민주영령을 위로하는 분향대를 지켰다. (이들 중 2명이 나중에 구속되어 정현애와 감방생활을 함께 했다.) 가족의 시체를

의 딸들과의 결혼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식탁을 함께 하는 것도 금했다고 한다.

135) 고정희의 1985년 편지와 안병무의 글에서는 ‘암 하아레츠’로 표기하고 있으나 1990년 출판된 『광주의 눈물비』 시집에서는 ‘암하레츠’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후 이 글에서는 ‘암하레츠’로 표기한다.

136) 고정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413쪽.

확인하려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의 눈물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¹³⁷⁾

그러므로 고정희에게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든 누이들, 자매들, 어머니들이 바로 ‘예수 시대의 암하레츠’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어머니 하느님”이 등장한다.

그러나 1985년 10월 또문 동인에게 보낸 위 편지에는 광주항쟁과 여성에 대한 언급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87년 광주항쟁에 대한 르포 기사 작성을 위해서 현장 취재를 했던 경험이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암하레츠 시편’과 광주항쟁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더욱 구체화되어갔고 드디어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상징적 기호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¹³⁸⁾ 김문주는 고정희의 “어머니 하느님” 호명은 한국문학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기독교 ‘모성-신’의 호명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역으로 인식되어온 종교적 절대 관념 속에서도 착취와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반성하게 한다”고 평가한다.¹³⁹⁾ 따라서 고정희는 한국문학사에서 여성신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자신의 문학작품에서 최초로 구현한 시인이다.¹⁴⁰⁾

137) 앞의 글 414쪽: 이 글에 나오는 정현애는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과 송백회의 주요 거점이 되었던 녹두서점의 실제 주인이었으며 당시 송백회 총무를 맡고 있었다.

138) 『광주의 눈물비』 「제3부 만월시화」에 ‘어머니 하느님’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시가 두 편 더 있는데 『이 가을에 드리는 기도-추수 감사절에』와 『여자학대 비리 청문회-성탄절에』이다. 『이 가을에 드리는 기도-추수 감사절에』는 “어머니 하느님”으로 시작하여 어머니 하느님에게 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자학대 비리 청문회-성탄절에』는 1연을 “해방자 예수를 낳으신 어머니”로, 2연은 “하느님을 낳으신 어머니여”로 시작하고 있으며 3연은 “한반도는 어머니로 구원받으리/ 딸 예수 태어나며 고통칩니다”와 같이 단 2줄로 구성되어 있다.

139) 김문주, 앞의 논문, 141쪽.

140) 1980년대에 발표된 영문학 분야의 여성문학 작품들 중에서도 당시 여성신학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꽤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1983년 풀리처 상을 수상한 흑인 여성 작가 앨리스 워커(Alice Walker)의 『컬러 퍼플』(*The Color Purple*)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흑인 여성 쉘리(Celie)가 자신의 경험을 “Dear God”이란 호명으로 시작하며 백인 남성 이미지의 하느님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된 서간체 소설이다. 그러나 쉘리의 자아가 성장해감에 따라 소설의 끝 부

고정희의 시세계에서 어머니가 주요 주제로 등장한 작품집은 1989년에 출판된 장시집 『저 무덤위에 푸른 잔디』이다. 고정희는 이 시집이 1984년 봄부터 엄인희, 김경란 등과 함께 “여자 셋이 힘을 합해 멋진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종주 등반길과 유럽여행에서 그 구상을 끝냈으며 『여성신문』에서 일했던 약 9개월에 걸쳐 시 쓰기 작업을 마쳤다고 술회했다. 그리고 이 시집을 쓰는 동안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여러 또문 동인들과 “함께 쓴맛 단맛을 나누고 싶다”라고 썼다. 더군다나 이 글에서는 자신의 시세계에 등장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 시집에서 나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어머니의 혼과 정신’을 ‘해방된 인간성의 본’으로 삼았고 역사적 수난자요 초월성의 주체인 어머니를 ‘천지신명의 구체적 현실’로 파악하였다. 눌린 자의 해방은 눌림받은 자의 편에 섰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눌림받은 자의 대명사인 어머니는 잘못된 역사의 고발자요 증언의 기록이며 동시에 치유와 화해의 미래이다. 민족공동체의 회복은 ‘새로운 인간성의 출현과 체험’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 그 새로운 인간성의 모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까? **나는 그것이 수난자 ‘어머니’의 본질에 있다고 믿는다.** 잘못된 역사의 회개와 치유와 화해에 이르는 큰 씨감곳이 이 시집의 주제이며 그 인간성의 주제에 어머니의 힘이 놓여 있다. (필자 강조, 155쪽)

그러므로 고정희는 인간성의 회복을 수난자 어머니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역사의 회개, 치유, 화해 역시 어머니의 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모성적 개념으로부터 등장한 “어머니 하느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민중의 모든 수난과 아픔을 끌어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다. 이 때 “어머니 하느님”과 민중을 연결하는 구

체적 매개체는 바로 ‘암하레츠 시편 8’이라는 부제를 단 시 『눈물의 주먹밥』에 등장하는 “주먹밥”이다. “어머니의 피눈물로 버무린 주먹밥/ 자매들의 통곡으로 간을 맞춘 주먹밥”은 곧 “해방구의 주먹밥”이며 광주 민중들이 “십일간의 해방구”인 “어머니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요건이기도 하다. ‘암하레츠 시편 10’이라는 부제가 붙은 시 『십일간의 해방구』에서는 “어머니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한 “어머니 하느님의 나라”를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문 열고 곳간 열었다
 시장 열고 가게 열었다
 담장 헐고 빗장 뽑았다
 서로서로 나눠주고
 서로서로 쥐어주며
 서로서로 실어주고
 서로서로 밀어주며
 형제자매 사랑으로 만리장성 쌓는 땅

주먹밥 백스물두 광주리 단무지 열두동이로
 해방구 백만 시민 배불리 먹이고
 백스물두 광주리 남아
 크게 크게 웃는 땅

오 그런 땅이 여기 우르르광 열렸다
 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우르르광 솟았다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세상
 이를 수도 꿈꿀 수도 없었던 땅

어머니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어머니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필자 강조)

이 「십일간의 해방구」 시는 앞에서 고정희가 1987년 광주항쟁 현장을 답사한 후 쓴 글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에서 묘사한 그 십일 동안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고정희는 『저 무덤위에 푸른 잔디』에 등장한 “수난받는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광주의 눈물비』에서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어머니 하느님”의 세계를 창조해냈다. 이것이 바로 고정희의 고유한 특징, “의외의 창발성, 뛰어난 시적 성취,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토해낸 온 몸의 청정한 숨결”의 예이다.¹⁴¹⁾ 그러므로 “어머니 하느님”은 고정희의 시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수유리(기독교), 광주항쟁(민중), [또 하나의 문화](여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고정희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가 도달한 지점의 형상화이다. 이 때 매개체가 된 “눈물의 주먹밥”은 그의 유고 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에 발표된 <밥과 자본주의>라는 연작시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억압받는 아시아 민중을 연대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 등장한다.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는 “광주 주먹밥”으로부터 아시아를 “식사의 연대”에 기초한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내는 시적 상상력으로 확장해 갔는데 그 점에서 훨씬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다.¹⁴²⁾

정효구는 고정희의 지리산에서 실족사로 인한 죽음이 한편으로는 비극의 형태를 띠지만 다른 형태로는 영웅의 승리와 같은 성공담의 모습을

141) 이시영, 「편집 후기」, 고정희 지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 비평사, 1992, 203쪽.

142) 현재 <5·18기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프로그램은 고정희가 <밥과 자본주의> 연작시에서 보여준 아시아 공동체의 정치경제적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년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고정희가 1990년 필리핀에서 경험한 아시아의 현실은 1980년 광주항쟁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밥과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형상화된 것이다(<http://www.518.org>).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로 그의 죽음의 “살아있는 자들에게 수많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⁴³⁾ 이는 고정희가 살아온 열정적인 삶의 태도, 고행의 수도승과 같은 삶의 방식, “어머니 하느님”을 창조해 낸 혁신적인 시적 상상력 등이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의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약 7년 동안 창립 동인으로 참여한 또문 활동은 그의 인식 세계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특히 여성주의 의식을 확대 심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고정희의 창조적 자아는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민중, 여성이라는 세 개의 이슈를 껴안고 씨름한 결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된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혁신적인 상징기호를 창조해냈다. 이러한 그의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회문화적 담론의 산물이며 그 결과 한국문학사에서 고정희를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개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정희가 1987년 또문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 좌담에서 주장했던 여성문학가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노력, 즉 “문학적 수업과 페미니즘 의식을 동시에 길러가는 작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정희 사후 22년이 지난 2013년 현재, 그가 어떻게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를 발전시켜 왔는가를 천착한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고정희의 삶과 문학에 대한 수많은 후속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143) 정효구, 「요절한 시인들이 보여준 죽음의 방식과 그 의미」, 『시인세계』, 통권4호, 2003 여름. 68쪽.

참고문헌

I. 자료

- 고정희, 『고정희 시전집』 1·2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11.
- _____,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평민사, 1985(초판 1979).
- _____, 『저 무덤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 비평사, 1989.
- _____, 『초혼제』, 창작과 비평사, 1983.
- _____,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 _____, 『김병순 의원을 만나서』, 『월간 해남』, 1969. 9·10. 합병호(통권 12호), 해남: 월간 해남사, 48-51쪽.
- _____,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 광주여성들, 이렇게 싸웠다』, 『월간 중앙』, 1988. 5. 402-417쪽.
- _____, 『독자에게서 온 편지』, 『新像』, 1971 가을호(제4권 3호), 대한공론사, 206쪽.
- _____, 『새롭게 뿌리내리는 기독교 文化를 위하여』, 고정희 엮음, 『예수와 민중과 사랑 그리고 詩』, 기민사, 1985. 7-16쪽.
- _____, 『여성주의 문학 어디까지 왔는가?: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190~205쪽. (원본은 『문학사상』, 1990. 2.).
- _____, 『한국여성문학의 흐름: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2호, 1986. 96~126쪽.
- 광주 YWCA 70년사 편찬위원회, 『광주 YWCA 70년사』,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1992.
- 『木曜詩』, 2집, 광주: 백제출판사, 1980.
- 『木曜詩』, 4집, 광주: 세종출판사, 1982.
- 『木曜詩集』, 3집, 광주: 민음출판사, 1981.
- 『木曜詩선집』, 제5집, 崔夏林 編, 실천문학사, 1983.
- 『목요시』, 제6집, 도서출판 청하, 1986.

II. 단행본 및 논문

- 김경희, 「고정희, 그 이름 高聖愛」, 『現代詩學』, 現代詩學社, 제23권 8호(통권269호), 1991. 8. 137~139쪽.
- 김남일, 『민중신학자 안병무 평전: 성문 밖에서 예수를 말하다』, 사계절, 2007.
- 김문주, 「고정희 시의 종교적 영성과 ‘어머니 하느님’」,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121-147쪽.
- 김승구, 「고정희 초기시의 민중신학적 인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11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249~275쪽.
- 김승희, 「상징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제2호, 한국여성문학연구학회, 1999. 135~166쪽.
- 김양선, 「486세대 여성의 고정희 문학체험」,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39~63쪽.
- 김영미, 「神의 저편: 고정희론」, 이화현대시연구회 편, 『행복한 시인의 사회』, 소명출판, 2004.
- 김진호, 김영석 편저, 『21세기 민중신학: 세계 신학자들, 안병무를 말하다』, 도서출판 삼인, 2013.
- 김주연, 「高靜熙의 의지와 사랑」, 『이 時代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119~128쪽.
- 노창선, 「고정희 초기시 연구」, 『인문학지』, 제20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61~91쪽.
- [또 하나의 문화], 『여성해방의 문학』, 동인지 제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87.
- 박선영, 「고정희 論 :정신의 수직운동을 중심으로」, 『돈암語文學』, 제14집, 돈암어문학회, 2001. 109~125쪽.
- 박혜란, 「토약질하듯 어루만지듯 가슴으로 읽은 고정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제9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53~99쪽.

- 송지현, 『불의 魂, 물의 詩: 고정희 論』, 『韓國言語文學』, 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127~152쪽.
- 안병무, 『예수와 민중: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김진호, 김영석 편저, 『21세기 민중신학: 세계 신학자들, 안병무를 말하다』, 도서출판 삼인, 2013. 91~115쪽.
- _____, 『민족 민중 교회』, 김진호, 김영석 편저, 『21세기 민중신학: 세계 신학자들, 안병무를 말하다』, 도서출판 삼인, 2013. 159~169쪽.
- 『여성해방 시 모음: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88.
- 유성호, 『고정희 시에 나타난 종교의식과 현실인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75~94쪽.
- 이소희,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과 고정희 비교연구 - 사회비평으로서의 페미니스트 시쓰기』, 『영어영문학 21』, 19권 3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06. 123~154쪽.
- _____, 『<밥과 자본주의>에 나타난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와 문체 혁명: 『몸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99~144쪽.
- 이시영, 『편집후기』, 고정희 지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201~203쪽.
- 이하석, 『봄바람 같은 이야기』, 『現代詩學』, 現代詩學社, 제23권 8호(통권 269호), 1991.8. 135~136쪽.
- 정효구, 『고정희 論; 살림의 시, 불의 상상력』, 『現代詩學』, 現代詩學社, 1991.10. 217~234쪽.
- _____,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 의식』, 《인문학지》 17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2. 43~86쪽.
- _____, 『요절한 시인들이 보여준 죽음의 방식과 그 의미』, 『시인세계』, 통권4호, 2003 여름. 65~68쪽.
- 조옥라, 『발문: 고정희와의 만남』, 고정희 지음,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

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191~198쪽.

_____, 『고행의 수도승, 우리들의 친구 고정희』,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245~255쪽.

_____, 조혜정, 『제3부 여성해방문학론: 편집의 글』,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137~139쪽.

조용미, 『그대, 아름다운 사람』, 『現代詩學』, 現代詩學社, 제23권 8호(통권 269호), 1991.8. 140~144쪽.

조혜정, 『시인 고정희를 보내며...』,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231~236쪽.

조 형, 『제1부 편지글을 통해본 고정희의 삶과 문학: 편집의 글』,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37쪽.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최정자, 『여울물의 추억』, 『광주문학』, 제6호, 광주문인협회, 1992. 19~22쪽.

III. 인터뷰

고성자, 강인한, 강정임, 김경천, 김정, 박혜란, 송희성, 안희옥, 윤수자, 임영희, 조옥라, 조은, 조형, 조혜정, 최정자, 최정희, 황광남, 황희택

Abstract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a Korean Feminist Creative Self in Goh Jung Hee's Writing

-A Focus o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Movement and the Socio-cultural Discourse in 1980s-

So-Hee Lee

This paper explores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a Korean feminist creative self in the writing of Korea's most famous and foremost feminist poet, Goh Jung Hee,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movement and the socio-cultural discourse in the 1980s. She is a very exceptional Korean woman literary figure, showing us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her creative self because she created her self as a dialogic subject with the other and the world. Born as the eldest daughter among eight siblings in a farmer's family in 1948, she graduated only from elementary school by traditional means. For her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she educated herself. Through working at *Monthly Haenam* Magazine in 1968-1969, being the university student program coordinator at the Gwangju YWCA in 1970-1974, studying at Hanshin University in 1975-1978, and participating in the Thursday Poetry group in 1979-1986, she did her own best for strengthening and widening her creative self and improving her literary training. However, after the Gwangju Uprising on 18 May 1980, her creative self was transformed and expanded by the trauma of that tragic historical event. Subsequently, joining The Alternative Culture, a feminist cultural movement organization, in 1984 had a crucial influence on

forming her own feminism. For example, she insisted that a feminist writer should integrate studying her literary subject with raising her feminist consciousness.

On 8 June 1991, in her last official speech for The Alternative Culture monthly seminar, Goh said that, throughout her whole life, she had struggled with three subjects, Christianity, *Minjung* (the common people), and Woman. As a result, she created the innovative symbolic sign, "Mother-Go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literary history. "Mother-God" first appeared in "Rice Ball of Tears," the second part of her ninth collection of poems, *Rain of Tears in Gwangju* (1990). "Mother-God" is the culmination of developing her "feminist" creative self, and she finally formed a trinity from Christianity, the Gwangju Uprising (*Minjung*), and The Alternative Culture (feminism). It is said that her death has provided u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and meditate on our everyday lives due to her passionate attitude for living, her life style like that of an ascetic monk, and her innovative poetic imagination in creating "Mother-God."

In short,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Goh Jung Hee's feminist creative self resulted from the influence of the social movement and the socio-cultural discourse in 1980s Korean society. Thus, she is recorded and evaluated as the greatest pioneering feminist writer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Goh Jung Hee, feminist creative self, Mother-God, Gwangju Uprising, rice ball, women's literature, feminist literature, feminist christianity

